

I. 30년의 발자취

1. 국립중앙 “청년의 집” 설립

(1) 국립중앙 “청년의 집” 설립

1958년 7월부터 9월에 걸쳐서 靜岡현 연습장 North Camp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되게 되었는데, 이 때 이 시설의 일부를 사회교육시설 및 근로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또한 국제적 친선시설로 활용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현지에서 제시되었다.

齊藤 靜岡현 지사는 그 요망에 따라 1958년 8월 임시의 현립 청소년센터를 개설함과 아울러 岸수상을 초청하여 국가의 힘으로 이를 실현해 주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東富士연습장 반환에 수반하는 문제의 일환으로서 내각관방 심의실, 총리부 청소년문제협의회와 문부성에서 그 구체화를 위한 연구를 행하여 국립중앙청년의 집을 설치할 방침으로 概算요구를 총리부에서 행했다. 이 개산요구는 1958년 12월 30일 문부성 소관(사회교육국 사회교육시설 주입관실)으로 옮겨가서 1억2천만엔이 국회에 제출할 예산으로 계상되었다. 이것이 국립청년의 집의 예산계상 제1호였다.

이리하여 1959년 1월 16일, 각의는 「靜岡현 東富士연습장 반환에 수반하는 조치에 관하여」에서 노스캠프의 “일부를 청년의 단체 숙박훈련시설(국립중앙청년의 집)로 사용할”것을 양해했다.

문부성에서는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설치를 법률적으로 명확히하기 위해 문부성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31회 국회에 제출, 1959년 4월 14일 법률 제130호로 성안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문부성조직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政令과 문부성설치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省令이 공포되었다. 국립중앙청년의 집이라는 명칭은 당시 지방 공공단체가 설치한 지방의 청년의 집이 이미 존재(청소년 교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는 1955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 중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로 생각된다. 아울러 국립중앙청년의 집을 설치할 때에는 아직 국립의 청년의 집을 다른 곳에도 설치한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같은 날 福田사회교육국장이 소장으로 겸임발령되었다. 이에 병행해서 노스캠프의 지주에 대한 사회교육시설 주입관을 통한 토지차입교섭이 행해졌는데 당초는 방위청의 연습장 교섭과 맞물려 교섭은 난항을 겪었다. 그래서 1959년 4월 16일 문부정무차관과 사회교육국장은 静岡현 지사를 방문하여 토지교섭 알선을 의뢰했다. 이리하여 5월 상순부터 지주측과 구체적 교섭을 시작하여 5월 30일에 25,302평을 임대하는 가계약이 성립되었다.

이에 앞서 5월 21일 문부성에서는 大臣 재정으로 국립중앙청년의 집 조직규정이 확정되어 소장의 직무권한, 서무과, 사업과의 편성, 소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규정했다. 그 뒤 국립청년의 집은 국립중앙청년의 집을 포함하여 총 13개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는데, 이 때 국립청년의 집의 조직의 원형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년의 집 설치에 수반하는 문부성설치법의 일부 개정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행정기관 직원원법외의 개정이 제31회 국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부성에서는 곧 잠정조치로서 성내의 정원조정을 통해 4명을 임시정수로 해서 6월 1일 石川서무과장을 우선 발령하여 창설 사무를 담당하게 했다. (정원은 4명→20명→66명(피크시)→29명(1989년)으로 변경되어 갔다.)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시설은 캠프건물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계획되었고 이를 위한 개수공사는 6월 10일에 착공되었다. 개수공사는 관리국 교육시설부 공영과에 의해 설계감독되어 공비 약 7천만엔으로 시작되었다.

시설의 개수와 병행해서 직원의 임명이 행해졌다. 정원법의 일부개정은 제32회 국회에서 7월 9일 성립, 정원 20명이 확정되어 8월 1일에는 專任소장으로 西田泰介씨가, 8월 16일에는 石田사업과장이 각각 발령되고 다른 직원도 속속 채용되었다. 현업직원은 가능한 한 현지주민을 채용했다.

개소식은 9월 19일 황태자, 秩父宮妃, 岸수상, 松田문부상 등 내빈 500명이 출석하여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개소식 뒤의 기념행사는 약 3,500명이 참석하여 강당, 체육관, 운동장에서 실시되었다.

개소식이 끝난 뒤에는 주취사업이 하나하나 기획되고 PR의 확대에 노력했다. 개소후 1년간은 시설·설비의 적극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그 내용에는 부지의 확장, 제2숙사의 정비, 제1숙사의 전관 난방공사의 실시, 세탁공장의 신설, 담장의 정비, 풀 탈의장의 개수, 식수, 太郎坊캠프장의 정비, 후지산

고산식물연구시설의 정비 등이 있다.

(2) “청년의 집” 구상의 원류

국립중앙청년의 집이 개소된 것은 1959년 9월 19일이지만 지방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청년의 집 등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행해진 것은 1955년도부터이다. 이것은 1945년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50% 이하로서 중학교 졸업후 취직하는 사람이 많아서 10대 후반의 근로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행할 필요성이 정부의 시책으로 중요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당시는 청년학급진흥법에 의한 청년학급의 개설을 장려하던 시대였는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공동숙박을 통한 생활훈련을 중시하는 교육을 근로청소년들에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급속히 자유로워진 전후의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비행과 성인들의 빈축을 사는 언동 등이 문제가 되어 식자들간에는 젊은이에 대한 도덕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던 시대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회의 실패를 반영하여 이미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 대해서 그 어떤 형태로든 생활훈련을 중시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여론의 흐름이 청년의 집의 보조금제도를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숙박훈련을 통한 건전한 청년의 육성”이라는 사상은, 그것에 영향을 준 유럽 및 미국의 사상과 일본 교유의 청년교육에 관한 시각이 배경이 되었고 이러한 시각들이 혼합되어 단체숙박훈련을 행하는 청년의 집이라는 발상이 탄생되었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아는 한도내에서 단체숙박훈련을 행하는 청년의 집이라는 발상에 영향을 미친 사항에 관해서 약간 언급해 보기로 한다. 국립중앙청년의 집 소장을 약 10년간 역임한 足立浩씨의 “청년의 집의 원류”(「청년의 집의 현상과 과제」 제12사단법인 전국청년의 집 협의회 간행, p.163 이하)에 의하면 “청년의 집의 원류를 탐구해 가면 거기에는 두갈래의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흐름을 계승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미에 그 근원을 지닌 흐름이다”라고 하고 있다.

구미에서 원류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足立浩씨는 유스호스텔 및 캠프를 들고 있다.

독일에서 시작된 유스호스텔은 Wander Vogel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유스호스텔의 목적인 국제유스호스텔연맹 규약 제7조에 따르면 “유스호스텔은 모든 사람, 특히 청소년의 여행시에 호스텔 및 그밖의 간단한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전원과 산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를 애호하도록 이끄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하나의 생물체로서 자연의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는 자연을 극복하면서 생존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원산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는 사상은 일본과는 다른 자연사의 학습(natural history)을 중시하는 서구의 시각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1987년 가을에 영국, 프랑스, 서독의 자연사박물관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연의 생성과 그 구조를 연구해 온 역사깊은 유럽의 동물, 식물, 암석광물, 고생물 등의 표본의 풍부성에 감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전원산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연 그 자체를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환경적 요소로서 중시하는 시각이 지배적으로서, 거기에 서구와 일본의 시각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유스호스텔은 한사람 혹은 소수인이 의기부합하여 그룹으로 숙박하는 것이 원래 취지이지만, 이것이 일본에 도입되면서 단체숙박훈련이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듯이 상당히 많은 인원의 단체숙박을 지칭하는 사상으로 변형된다. 수학여행과 같은 것은 서구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복이라는 시각도 서구에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동양적, 일본적 교육사상의 일단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일본에 도입된 유스호스텔에 관한 시각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건전한 청소년활동으로서 야외활동을 장려하여 야외활동의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955년에 시작된 지방 공공단체에 대한 청년의 집의 보조금은 “청소년 교육시설 정비 보조” 혹은 “청소년 야외훈련시설 보조”로서 지출되어, 1955년부터 1957년에 걸쳐서 설치된 청년의 집은 청소년 야외활동의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다음으로 캠프에 대해서인데, 尾立浩씨에 의하면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자연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양성함으로써 생활기술을 배양한다.
- (2) 건강한 체력을 배양하고 그것을 통해 건강하고 밝은 인격을 형성해 간다.
- (3) 단순한 생활에서 벗어나 생활 그 자체에 대한 탐구를 통해 창조력을 고양시킨다.

(4)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해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태도, 또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배양한다.

(5) 여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즐기고 이용한다.

캠ป์의 목적은 대자연 속에서 단순한 공동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협동의 정신과 책임감을 기르고 또한 사회생활상 필요한 능력, 생활기술을 체득케 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꾀하는 데 있다.

캠ป์의 사상이 일본에서 중요시된 것은 공동생활을 통해 단체로서의 모럴의 훈련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보다는 단체로서의 행동이 중시되는 것은 일본사회의 특징으로서, 그것이 경이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외국인에 의해서 예전부터 지적된 바 있다. 오늘날의 청년의 집에서도 고정적인 캠ป์장을 안팎으로 설치한 곳이 많은데, 이것은 캠ป์가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일 것이다.

유스호스텔과 캠ป์가 청년의 집의 원류가 되었음은 앞서 언급한 대로이지만, 일본에서 원류를 찾자면, 足立浩씨는 한학서당, 일본 국민고등학교, 농민도장, 경영전습농장 등을 들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제2차대전 전에는 일본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인구로서 농촌에 있어서의 청년층을 위한 교육이 일본 사회교육의 커다란 과제였다. 당시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인구는 국민의 일부였는데 그 고등교육에서는 舊制 고등학교와 같이 인간형성의 장으로서의 기숙사교육이 중시되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하게 정규 고등교육 또는 정규 중등교육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근로청년에 대해서 기숙사에서 침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을 행하는 정규학교 이외의 교육이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주적 인간의 육성을 목표로 침식을 같이 하는 공동생활을 중시하는 사상은 청년의 집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의 창설과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설치에 있어서도 그 어떤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3) “청년의 집”에 대한 기대

앞서 언급했듯이 국립중앙청년의 집이 설치될 당시는 청소년의 비행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게다가 고등학교 진학자는 중학교 졸업자의 절반에도 미달하여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덕교육 등의 필요성이 관계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던 시대이기도 했다. 이것은 국립중앙청년의 집

개소식에서 행한 岸총리대신의 축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 전후 10수년이 경과한 오늘날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그다지 양호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특히 청소년의 비행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대책을 중심으로 모든 방면에서의 종합대책을 확립하여 그 결실을 거두지 않으면 안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설치된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사명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봉 후지산 아래 이곳에 모인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연수와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상호 경험을 교환하면서 명량한 단체생활을 보내고, 무언가를 얻어서 자신의 향토로 돌아가 향토건설의 중심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와 같은 시대배경하에 설치된 국립중앙청년의 집은 단체숙박훈련을 통해 건전한 청년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 규정되었다. 1959년 3월에 시행된 문부성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1959년 4월 14일 법률 제 130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앙청년의 집)

제25조의 1. 本省에 국립중앙청년의 집을 둔다.

2. 국립중앙청년의 집은 단체숙박훈련을 통해 건전한 청년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이다.

3. 국립중앙청년의 집은 靜岡현에 둔다.

4.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내부조직은 문부성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청년의 집 설치의 중점적인 목표는, 첫번째로는 규율을 지키면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건전한 청년을 육성하는 데 있었다. 청소년의 비행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대배경하에서 규율, 공동, 우애, 봉사 등의 근로청소년의 덕성의 함양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각은 개소 5주년 기념식전에서 행한 문부대신의 식사 속에서도 엿볼 수 있다. 愛知문부대신은,

… 청년의 집은 단체숙박훈련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도모하는 사회교육상의 중요한 시설입니다. 다음 대를 담당하는 청소년이 장래에 대한 꿈을 갖고 향토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심정을 배양하며,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강력한 도덕적 의지와 실천력을 체득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는 바로서, 청년의 집에 걸려 있는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개소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든 거의 동일하게 “향토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심정을 배양하고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강력한 도덕적 의지와 실천력의 육성을 익히는” 장으로서 청년의 집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4) “청년의 집” 성격에 관한 견해

또한 전국 청년의 집 협의회는 1950년부터 매년 운영연구협의회를 개최해 왔는데, 1961년 12월에 행해진 운영연구협의회에서는 청년의 집의 성격과 교육목표에 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청년의 집의 성격에 관해서는, 유스호스텔과 공민관 및 그밖의 시설과의 차이, “여행을 위해 숙박하는 중간역”으로서의 유스호스텔 및 “근로청소년의 오락과 숙박의 장”으로서의 근로청소년 휴과의 성격상의 차이점 및 공민관과의 차이가 지적되어, 청년의 집은 그 “지역주민의 교육을 권장하는 장이며 조직적, 계속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연수의 장이다”라고 규정되었다(「국립중앙청년의 집 5년의 발자취」, p.85).

또한 교육목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성의 신장, 사회성의 함양’을 지양하는 시설로서 청년의 생활지도의 장이라고 논의되었다”(앞의 책 p. 86). 1960년에는 공립의 청년의 집이 100여개소에 이르렀는데 국립중앙청년의 집은 이들 공립청년의 집과 협조를 위해 그 중심이 되어 전국 청년의 집 협의회를 조직하여 청년교육의 진흥을 도모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립청년의 집은 “지역주민의 교육을 권장하는 장이며 조직적, 계속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숙박연수의 장”으로서 생활지도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당시 지방에 산재해 있던 근로청년 대상의 정년학교와 같이 계속적, 조직적인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설정하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2. 국립 및 공립 “청년의 집”의 정비·발전

(1) 국립중앙 “청년의 집”의 정비·발전

국립중앙청년의 집은 1959년 9월 19일에 개소한 뒤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순조로운 발전을 거듭했다.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시설은 노스캠프 시대의 건물들을 보수해서 사용했지만, 1967년부터 34년에 걸쳐서 면모를 일신하는 건물의 개축이 행해졌다.

1967년 공사로 준공된 신설숙사는 청년의 집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 설계하여 근대 건축의 정수를 모아져 건립되었다. 단순한 구도 속에서 변화를 꾀하여 연수생이 안락한 장소로서 호평을 받았다.(所報, 「국립중앙청년의 집」, No18., 1968, p.2)

이해(1967년)에는 신설숙사로서 “자작나무” “낙엽송”이 완성되었다. 나아가서 1968년에 식당의 개축이 행해져서 한번에 300명의 연수생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1969년에는 관리동, 강당, 연수동이 완성되어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건물은 면모를 일신했다.

그 뒤 1973에서 유·점도 도장, 1978년, 79년에는 제2숙사를 제1숙사와 통합하여 신설숙사로서 “벚꽃” “느티나무”가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제1숙사의 정원이 440명이었던 것이 제2숙사의 정원까지 합쳐져서 550명이 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제2숙사 용지에 직원숙사 10호분이 완성되었다.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영선공사는 종래 문부성 관리국 교육시설부의 협력을 얻어서 행해지다가 1978년부터 건설성 중부지방 건설국의 설계·감리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었다.

(2) 공립 “청년의 집”의 증가

「10년의 발자취」(전국청년의 집 협의회, 1969년, pp.42~43)에 따르면, 청년의 집이 각 都道府縣에 설치되게 된 것은 문부성의 보조금정책에 의한 바

가 지대한데 이 점에 관해서 다음과 기술하고 있다.

청년의 집의 성격과 기능

○ 청년의 집의 발족

1965년 4월 현재 독립청년의 집이 전국에 90개소, 국립청년의 집으로서 御展場의 중앙청년의 집, 九州의 阿蘇청년의 집, 東北의 磐梯청년의 집, 北海道의 大靄청년의 집 등 4개소, 거기에 청년의 집의 전신인 청소년 교육시설, 청소년 야외훈련시설로서의 청소년의 집이 전국에 25개소 있고, 이들 유사시설을 포함하면 전국에 119개소에 이른다.

청년의 집이 발족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52년에 문부성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의 야외활동을 장려하여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공동생활을 체험시킴으로써 창조력을 발휘하고 향토에 대한 애정과 사회정의의 지키는 정신 등을 함양시키고자 했다. 그것을 위해서 “청소년 캠프지도자강습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서 1955년에는 이 야외활동의 시책을 강화하여 6월 20일부터 문부사무차관이 都道府縣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청소년 단체활동의 촉진에 관하여」라는 통첩을 보냄과 아울러 야외활동의 거점으로 “근로청소년교육시설”(1955, 56년) “청소년 야외훈련시설”(1957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청년의 집의 시작이었다.

한편 청년학급은 1955년을 경계로 하여 정체되기 시작했다. 즉 1955년에 학급수 17,606학급, 학생 1,091,734인이었지만, 1957년에는 학급수 16,029학급, 학생 926,146인으로 감소하고 있다. 1957년 12월 10일에는 사회교육심의회로부터 「문부대신에게 청년학급의 개선방안에 관하여」의 답신이 제출되고 1964년 4월 28일에는 중앙교육심의회로부터도 답신이 제출되어, 직업기술교육을 중시하고 직장 청년학급을 촉진할 것, 실험실습 훈련시설을 설치할 것 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문부성은 이들 답신에 기초하여 청년학급의 진흥에 힘쓰고 아울러 종래의 “청소년 교육시설” “청소년 야외훈련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고 직업에 관한 실험실습을 행하는 시설을 정비하기로 하여 명칭도 “청년의 집”이라고 고치고 1958년부터 6,000만엔의 국고보조로 都道府縣과 市 등에 그 설치를 장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 청년의 집은 당초 청소년의 야외활동시설로서 설치되었다가 1958년도부터 청년학급의 충실을 위해 실험실습설비를 갖춘 직업기술교육시설을 구비한 곳으로서 설치되게 된 것이다. 문부성은 발족 당시 청년의 집의 성격으로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1) 청년의 심신발달을 지향하는 교육시설

(2) 생활의 규율이 있고 적절한 지도자가 있어서 규율 및 공중도덕을 지키는 습관을 익히게 함과 아울러 우애, 협동의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곳.

(3) 직업기술 연수의 장으로도 볼 수 있는 곳.

(4) 야외여행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청년의 휴식의 장.

(5) 사적, 명승 등 경승지 및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곳에 근접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토애, 조국애를 배양할 수 있는 곳.

(6) 각종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설비 및 도서, 시청각 교육용구가 갖추어져 청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교양을 증진시켜 내일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곳.

이로써 명확해지듯이 청년의 집은 그 발족 당초부터 성격규정이 극히 애매해서 다양한 성격을 지닌 시설로서 각 현의 실정에 따라 설치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년의 집은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단체숙박훈련을 통해 향토애, 조국애를 지닌 덕성이 풍부한 인간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초기의 단계에서는 실험실습설비를 갖추어 직업기술 연수의 장으로 삼으려는 시각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후 일본의 경제부흥을 위해 중학교 졸업후 취직한 근로청년에 대해서 직업기술을 익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가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년의 집 중에는 직업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실험실습설비를 구비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것은 뒤의 일본역사가 보여주듯이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기업내 직업기술교육이 활발한 곳으로 손꼽히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기능을 청년의 집에 기대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나아가서 앞의 기술에서 청년의 집은 그 성격규정이 애매하여 다양한 성격을 지닌 시설로 간주되었다고 했지만, 역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문부성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한 청년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격을 폭넓게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립청년의 집의 그 뒤의 발전양상이 보여주듯이 청년의 집 기능의 중점은 근로청년의 덕성의 함양이었지만 아울러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시설, 교양을 익히기 위한 학습시설로서의 성격을 겸비한 곳으로서 발전해 갔다.

(3) 공통의 교육목표

국립청년의 집의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1972년 4월 17일부로 「국립청년의 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문부성 사회교육국장 통지가 발표되었다. 이 통지는 1983년 10월 19일부로 개정되었지만, 이 통지에 나타난 국립청년의 집의 “교육목표”에는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 통지에서는 청년의 집의 교육목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교육목표)

국립청년의 집은 건전한 청년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숙박훈련을 통해 다음 각호에 나타난 교육목표의 달성에 노력한다.

- ① 규율, 공동, 우애 및 봉사 정신 함양.
- ② 자율성, 책임감 및 실행력 배양.
- ③ 상호이해의 증진과 향토애, 조국애 및 국제이해 정신의 배양.
- ④ 교양의 향상, 정서의 순화 및 체력의 증강.

그러나 이와 같은 설립당시의 청년의 집의 목적과 성격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용해 가고 있는듯이 생각된다. 즉 국립청년의 집의 관리운영 통지는 1983년 이래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집의 설치목적은 그 중심이 청년의 “덕성의 함양”과 아울러 “풍부한 생활체험을”과 같이 실질적으로 조금씩 변용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문교시책」(문부성, 1988)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같은책, pp. 97~99).

(청소년교육시설)

자연속에서 집단적 공동생활의 체험을 축적하는 것이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청소년활동의 거점으로서 청년의 집, 소년자연의 집 등 청소년 교육시설이 정비되고 있다.

문부성은 1955년에 청소년의 단체숙박훈련을 위한 “청소년 교육시설”에 대한 보조를 시작하여 국립청년의 집의 정비를 장려하는 한편, 1959년에 황태자 전하의 혼인을 기념해서 “국립중앙청년의 집”을 설치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계속해서 1963년부터 1976년에 걸쳐서 전국 12개소의 국립청년의 집을 정비했다. 또한 도시청년의 증가를 감안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숙박연수를 포함하지 않는 비숙박형 청년의 집도 1964년부터 설치하기 시

작했다. 이와 같은 국가의 부흥책과 지방 공공단체의 노력으로 국공립 청년의 집의 전국적인 설치가 진행되어 1987년에는 439개소에 달하게 되었다.

청년의 집의 이용상황에 관해서 살펴보면 1974년에는 430만명이었지만 1986년에는 936만명에 달한다. 이것을 숙박형, 비숙박형으로 구분해 보면 근년에는 전자가 점증하고 있음에 대해서 후자는 감소하고 있다. 숙박형의 청년의 집은 당초는 근로청소년에 의한 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고등학교 진학자의 증가와 학교 단체이용의 증가 등으로 차츰 재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이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비숙박형의 청년의 집은 청소년단체나 그밖의 사회교육 관계단체와 개인에 의한 이용이 중심이지만, 근년에는 개인이용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한편 소년의 자연체험, 근로 등의 체험이 부족함에 비추어 대자연속에서의 집단숙박생활과 야외활동 및 자연탐구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소년자연의 집이 설치되고 있다. 문부성에서는 1970년에 공립 소년자연의 집 정비에 대한 보조를 개시함과 아울러 學制백년기념사업으로서 전국에 14개소의 국립소년자연의 집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립소년자연의 집은 1975년의 국립寮戶소년자연의 집 설치 이래 1988년까지 11개소가 설치되었다.

앞에서 기술한 소년자연의 집 설치의 취지는 고교생과 중학생 등의 재학 청소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청년의 집에도 해당되는 점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의 집의 운영도 소년자연의 집의 설치취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단체숙박환편을 통한 바람직한 덕성의 함양 외에 의도적·계획적으로 “풍부한 생활체험”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청소년교육에 있어서 이전에는 근로청년이 중심이었던 것이 재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소년으로 그 중점이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연수생과 연수내용의 추이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설립당초에는 연수지도사업보다는 주최사업을 많이 실시하여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연수의 성과를 올리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소장 이하 직원일동이 일체가 되어 꽤 많은 주최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뒤에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어 1962년도부터는 주최사업의 회수를 연간 10~12회 정도(1961년에는 21회)로 한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연수자 수는 1969년도 27,525명, 1970년도 105,021, 1971년 121,645명이 되었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연수자수는 매년 10만명을 넘고 있다. 주최사업의 정리충실을 기하려는 이유에 관해서 「국립중앙청년의 집」 제6호 (1962. 4. 1발행)의 p.3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1962년도 주최사업의 구상

○ 주최사업의 정리충실을 꾀하려는 이유

최근에 이르러 일반이용자의 증가는 매우 두드러지며 게다가 전초에 지적한 대로 매년 평균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도의 충실을 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최사업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이용자에 대한 지도의 충실을 기해야만 하는 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여 일반이용자와 주최사업에 대한 우리의 역량배분의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충분한 준비 아래 그 효과를 현실히 하면서 주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최사업의 회수를 연간 10~12회정도(1961년에는 21회)로 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편성에 있어서도 평신통히 국립청년의 집의 주최사업에 걸맞도록 하기 위해 시설의 성격, 입지조건 및 시설설비의 조건에 적합한 것을 고려했다.

○ 사업편성의 관점

계획의 개요는 별표와 같은데, 사업편성의 관점 등에 관해서 약간의 설명을 가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시설의 성격을 감안하여 주최사업은 원칙적으로 직업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규모의 사업으로 한정했다.

두번째는, 각 사업은 공동숙박의 제형을 통해서 훌륭한 사회의 형성자로서의 태도를 체득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표준일정을 4박 5일로 함과 아울러 특히 농심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청년 장기연수”(2년)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번째로, 후지산독이라는 웅대한 입지조건을 이용해서 교류의 기회가 드문 중소기업체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사 청년의 모임”을 계획함과 아울러 실기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야외활동 리더 양성연수”를 실시하고자 한다.

네번째로는, 당 시설이 스포츠에 관한 시설·설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실기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스포츠 리더 양성연수”를 실시하고자 한다.

다섯번째로, 이밖에 “지방청년의 집 직원연수” “중견청년 연수” 및 “청년단체·청년학급 운영기술강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특히 청년단체·청년학급운영기술강좌는 관해서는 각각 연간 2강좌제로 하여, 계속해서 수강할 수도 있고 선택해서 수강할 수도 있도록 조치해서 지방에 있어서의 지도자 양성계획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한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앞의 기술로 밝혀지듯이 주최사업은 연간 10~12회로 정선하여 원칙적으로 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에 한정했고, 근로청년 중에서도 농업청년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중시했으며 앞으로의 청년리더를 위한 연수를 기획하고 있는 것 등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연수생중에 접하는 근로청년의 비율은 개소후 10년째인 1968년 61.6%가 되어 개소 당초의 1960년의 44.8%에 비하면 그 증가가 매우 현저하여 근로청년 비율의 절정기를 맞는다. 단지 근로청년중에서도 1955년 무렵부터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증가하여 1968년에는 총 연수단체중 37.7%에 이르렀다(所報 No.20, 1970년 1월, p.2).

나아가서 1960년대부터 교교신입생의 오리엔테이션 연수가 조금씩 증가해간다. 그 당시의 생각은 “학교교육의 결함을 보완하는 데 협력할 목적으로 이러한 연수에도 가능한 한 노력을 기울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p.2)고 기술되어 있어 현재의 시각과 비교하여 매우 흥미롭다.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연수생은 1970년 중반에 이르면 그 대부분을 교교생과 대학생이 차지하게 된다. 그 점에 관해서 당시 소장이었던 西村씨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15년이 경과된 오늘날 사정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번 이곳을 방문한 단체는 두번, 세번씩 찾는 것이 보통으로서 연간 연 19만명의 청년들이 운집하는 대규모의 시설로 성장했다.

바야흐로 청년의 집은 질과 양 양면에서 모두 청소년교육의 중심시설로서 큰 발전을 거두었다. 그 이용자는 고등학교 교육의 보급에 수반하여 대부분 고등학교, 대학의 재학생 및 그 졸업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관념과 체제로는 이들 연수생에 대해서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어 지도의 방식과 내용을 일신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청년의 집의 목적과 사명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만 한다.

이에 따라 종래의 실적을 토대로 그 특표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

는데 새로운 과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년의 집의 특질로서, 이른바 “교육냄새”가 나지 않는 지도의 묘미를 이러한 목표 아래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① 생활경험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꾀한다.
- ② 청년 상호의 교류를 심화시키고 접촉을 도모한다.
- ③ 자연을 가까이 하고, 맑고 아름다운 마음과 튼튼한 신체를 배양한다.
- ④ 규율을 지키고 우정을 돈독히 하며 봉사와 정신을 배양한다.
- ⑤ 스스로의 과제의 발견과 목표의 확립을 촉진한다.

(所報 「국립중앙청년의 집」 제26호 1975.3. pp.2~3)

앞의 논의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종래 청년의 집의 목적으로서 고려되었던 생활훈련을 통한 덕성의 함양이라는 시점에 대해서 “생활경험을 통해”라는 시각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 무렵부터 체험학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학교교육 중에서도 단순한 지적 학습만이 아니라 경험·체험을 통한 학습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오늘날 청년의 집의 기본적인 시각의 하나가 되고 있는 “청년의 교류를 심화시키고 상호접촉을 도모한다”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대가 흘러서 1983년이 되면 “연속박자수 중 절반 가까이를 점하는 것이 고등학교 등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연수이며, 30%를 점하는 것은 기업의 신입사원연수”(所報 「국립중앙청년의 집」 제34호 1983.11.15, p.5)의 시대가 된다. “나머지 20% 중에는 수학여행의 일환으로서의 이용, 학생회 리더연수, 부활동의 합숙연수 등이 있다(p.5).” 이에 따라 학생의 이용이 실질적으로 70% 가까이 되는 시대를 맞기에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청년의 집은 재학청소년에 중점을 둔 사회교육시설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리고 기업의 신입사원 연수 등을 통해 근로청년을 위한 연수시설로서의 성격도 포함하게 되었던 것이다.

3.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현상과 과제

(1) 청소년교육에 관한 국가시책

청소년교육에 관한 현재의 국가의 시각은 어떠한가? 여기에서는 1986년 4월, 문부성 사회교육국이 작성한 「사회교육의 現狀」에서 청소년교육에 관한 견해를 인용한다.

청소년 교육

(1) 사회교육으로서의 청소년교육은 주로 학령기에 있는 아동에서부터 청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과 학교의 장 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육활동이다. 오늘날에는 특히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그 학습·활동의욕을 고취시켜서, 자유롭고 개성적인 학습활동과 풍부한 생활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몸과 마음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각기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상호협조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2) 근년에 청소년은 일반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화, 정보화 및 핵가족화, 어린자녀를 둔 가정의 증가 등의 사회변화에 수반하여 야기된 놀이장소 및 놀이집단의 변화, 자연과의 접촉의 부족, 혹은 가정에 있어서의 과보호 등 인간형성과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또한, 청소년의 비행은 1984년에 들어서 진정되는 경향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의 배경과 요인은 복잡다단하지만 청소년 자신과 관련된 요인으로서의 인내심, 자립심, 사회성 등의 자기억제력의 약화, 정서면의 불안정, 규범의식의 결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발달상의 문제점은 비행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되는 일반적 경향으로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담당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중대한 문제이다.

(4) 이와 같은 사태에 대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각각의 발달단계에 따른 각종의 생활체험을 축적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발성과 활동성의 배양, 혹은 자기의 확립과 같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제를 적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연과의 접촉, 동료와의 사귀, 근로의 체험, 기성세대와의 교류 등의 생활체험은 이전에는 자연발생적, 일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종전과는 다른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적 배려하에 “풍부한 생활체험”을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제공

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5) 또한 근로청년에 관해서는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각종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 이를 위해서 청소년교육의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가. 청소년교육시설의 정비

청소년이 대자연 속에서 집단숙박생활과 모험에의 도전 등을 통해 자연과의 친화감 및 경건한 마음을 배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익히며 풍요로운 마음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소년자연의 집, 청년의 집, 야외활동시설 등의 정비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청년의 집은 국립이 13시설, 공립이 424시설이 있고, 연간 약 1,300만인의 청년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소년자연의 집은 국립 10시설, 공립이 206시설이 있고 연간 약 300만인의 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나. 청소년 단체활동의 조장

청소년이 집단 속에서 자기를 확립하고 연대감을 익혀가는 데 있어서 청소년 단체활동이 담당하는 교육적 역할은 지대하다. 특히 단체의 결성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활동은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양식 반복훈련하고, 아울러 봉사정신의 함양과 국제협력의 정신을 촉진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간형성상 의미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활동의 적극적인 조장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단체는 단체수 약 20만, 회원수 약 1,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다. 청소년의 지역활동, 자원봉사활동의 추진

청소년의 향토이해, 연대감의 형성, 봉사정신 함양 등을 위해 향토의 민화 및 전통예능의 계승, 혹은 향토미화 등의 지역활동, 지역의 교육기능을 활용한 청소년의 지역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과 관심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라. 청소년 과학활동의 추진

소년의 과학하는 마음을 함양시키기 위해 특정한 흥미·관심을 자발적·계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사회교육의 특색을 살리고, 천문, 고생물 등 과학에 관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학습·활동하는 청소년 과학활동을 추진한다.

마. 청소년의 생활환경의 정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환경정화에 관해서는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가 중심이 되어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 의한 조치 및 청소년육성 국민운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잡지, 텔레비전 등의 매스컴에 관해서는 관계업체에 의한 자주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PTA와 청소년 육성단체들도 각기 환경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바. 근로청년에 대한 학습기회의 제공

기술혁신과 가치관의 다양화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출현하는 생활 및 직업에 관한 새로운 지식·기능의 습득, 혹은 정서 및 교양과 관련된 인간적 충실감을 추구하기 위한 생애에 걸친 학습의 필요가 지적되어 생애교육의 확립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청년기는 사회인, 직업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필요한 자질의 향상과 생애를 통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관심과 태도를 배양하는 학습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기업 등이 행하는 연수에 있어서도 단순히 필요에 따른 직업기능의 습득에만 편중되지 않고 청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 폭넓게 학습 및 체험을 보완하고 청년의 풍요로운 인간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청년의 집 등의 교육의 장을 정비, 제공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과제

사회의 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오늘날 청소년의 생활체험은 다양하게 변용하여 그 발달과제를 적시에 달성하기 위한 배려가 점점 증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교육은 인간형성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활체험을 교육적 배려하에 의도적으로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지역활동, 자원봉사활동, 단체활동, 대자원 속에서의 활동 등에 자진해서 참가하는 태도를 배양하는 것을 장려함과 아울러, 사회에 있어서도 그 교육적 의의에 주목하여 이것을 평가하고 또한 참여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토대로 청소년교육은 소년자원의 집 등 활동의 장의 정비, 단체활동의 조장, 교육지도자의 양성, 효과적인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문화센터, 과학박물관 및 소년 과학교실 등의 시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소년교육은 특정한 흥미와 관심을 집약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특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창조성의 함양과 과학하는 마음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확충해 가는 것이 과제이다.

한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을 정화해 가는 것이 교육시책의 실효성을 관점에서도 유효·적절하다. 환경의 정화는 관계업계의 자주규제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가일층의 노력을 부탁함과 아울러 지역 및 관계단체가 협력해서 실효성있는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앞으로도 요청된다.

청소년교육시설의 현재적 의의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성장에서 필요한 자연과의 접촉, 동료와의 사귄, 근로의 체험, 노소간의 교류 등의 생활체험은 이전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도시화, 핵가족화, 가정에 있어서의 자녀수의 감소 등에 따라 이러한 체험은 일상생활 속에서 체득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교육에 관한 국가와 각 지방행정단위의 시책은 청소년의 인간형성에 있어서 필요한 “풍부한 생활체험”을 교육적 배려아래 의도적,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대자연 속에 있는 집단 숙박훈련시설로서의 청년의 집과 소년자원의 집은 이와 같은 “풍부한 생활체험”을 제공한다는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2) 현상과 과제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설치목적은 문부성 조직령 제7조에서 “국립청년의 집은 단체숙박훈련을 통해서 건전한 청년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에게 “풍부한 생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의 다양하고도 광역적인 연수·교류의 제활동을 단체 숙박훈련을 통해 촉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

(2) 청년의 집의 연수활동 방식에 관한 선도적인 사업을 개발·실시하여 그 효과를 널리 봉사할 청년의 집과 청소년관계기관, 단체 등에 보급하여 연수활동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3) 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 교육시설 직원의 지식·기술 등의 수준의

향상에 관한 연수를 행한다.

청년의 집의 교육목표는 문부성 사회교육국장 통지 「국립청년의 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1983.10.19, 文社青 제100호)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국립청년의 집은 건전한 청년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숙박훈련을 통해서 다음의 교육목표의 달성에 노력한다.

- (1) 규율, 협동, 우애 및 봉사정신의 함양
- (2) 자율성, 책임감 및 실행력의 체득
- (3) 상호연대의식의 고양과 향트애, 조국애 및 국제이해 정신의 배양
- (4) 교양의 향상, 정서의 순화 및 체력 증강의 도모

국립중앙청년의 집에서는 이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기능을 갖추고 있다.

- (1) 훌륭한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특색있는 야외활동(후지산 등산, 하이킹, 오리엔티어링, 자연의 동식물 및 조류 등의 관찰, 캠프, 캠프화이어, 야외취사)등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 하는 호연지기를 길러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다.
- (2) 생활환경, 생활체험 및 직업, 연령을 달리하는 다양한 사람들 및 문화를 달리하는 외국의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 (3) 단체숙박훈련을 통해 규율있는 공동생활 속에서 자주성과 협조성 등을 체득할 수 있다.
- (4) 문화적, 전통적인 창작활동 및 지역성을 활용한 노동, 제배 등 근로, 봉사, 생산적 활동의 체험이 가능하다.
- (5) 스포츠(야구, 축구, 배구, 테니스, 농구 등) 및 무도(유도, 검도, 궁도)등을 행함으로써 심신을 단련할 수 있다.
- (6) 재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가정교육 관계자, 학교교육 관계자, 사회교육 관계자의 상호이해와 상호협력하에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상호연대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일체가 되어 이들 기능을 활성화하여 관리운영해 갈 것이 요청된다.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연간 연속박자수는 근년에는 본관 이용자가 10~11만명이며, 여름철 캠프장 이용자의 연속박자수가 약 3천명이 되고 있다(1988년도 본관의 연속박자수는 103,292명, 캠프장의 연속박수는 2,910명이

었다)

또한 연수자의 내역은 고교생과 대학생 등의 학생이 65.8%, 기업 등의 근로청년이 20.7%,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 등의 지도자가 10.6%, 기타 2.8%이다(이상은 1988년 통계).

都道府縣별 이용상황을 보면, 東京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静岡, 愛知, 神奈川, 千葉, 山梨의 순이다.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연수생은 설립초기에는 전국으로부터 청년들이 모여들었지만, 현재는 각지에 국공사립의 청년의 집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연수생의 주소의 都道府縣별 상황을 보면 이른바 Area (東京, 静岡, 愛知, 神奈川, 千葉, 山梨)에서 약 80%를 점하고 있다.

연수생의 숙박일수를 보면 2박 3일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48.3%, 다음으로 3박 4일이 20.8%, 1박 2일이 16.2%로 되어 있다.

연수내용을 구성비로 살펴보면, 학교의 경우에는 체육·스포츠 활동이 22.0%, 야외활동 21.6%, 일반교양 14.8%, 예술·문화활동 10.3%,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9.9%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기업의 경우에는 직업에 관한 지식·기술 48.5%, 야외활동 15.5%,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8.6%이다.

한편 본관의 이용자는 11월부터 2월까지의 이용자가 드물고 3월부터 10월까지의 거의 정원을 채우게 되는 시기이다. 겨울철 이용의 촉진을 위해 지금까지 가족동반 및 그밖의 다양한 시도가 실시되었지만, 이 기간중 이 지역에서는 스키가 불가능한 탓도 있고 날씨가 춥고(실외는 매일 아침 0°C 이하)바람이 불기도 하여 별 묘방없이 고심하고 있다.

외국인의 이용상황은 1988년에 연속박자수는 2,730명, 38개국에 달하고 있다. 38개국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참가국 내역)

싱가폴, 미국,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대만, 홍콩, 한국, 스리랑카, 온두라스, 뉴질랜드, 네델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 태국, 영국, 서독, 프랑스, 방글라데시, 부탄, 캐나다, 이집트,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모로코, 네팔, 파키스탄, 터키, 말레이시아, 에쿠아도르, 덴마크, 오스트렐리아, 스위스, 파푸아뉴기니아, 멕시코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예전과 상황이 다른 점은 공립의 대형 청년의 집(정원 500인 이상)이 점차 수도권 내의 현에 설립되어, 국립중앙청년의 집은 이들 시설과 경합관계에 있어 좋은 의미에서의 연구노력이 행해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중앙청년의 집은 지금보다 더욱

주최사업(연간 대략 10건)의 연구에 몰두하고 위탁지도사업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풍부하게 해야 하며 세심한 서비스의 제공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국립중앙청년의 집은 청년의 집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은 채 연수는 엄하게, 생활공간은 쾌적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일 것이다. 왜냐하면 풍족한 환경속에 있는 현대의 청년은 더 많은 비용을 내더라도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쾌적한 공간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부자유 체험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한도가 있다. 대형의 공립청년의 집, 호텔 등과 경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고려할 때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숙박동이나 연수실은 그것이 세워질 당시에는 훌륭한 시설이었지만,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금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숙박동의 경우 일인당 공간을 더 확장했으면 하고(오즘 젊은이는 큰 백을 갖고 오기 때문에 짐을 놓아둘 공간이 필요하다)또한 작은 방도 10인실, 12인실이 많지만 일부는 4인실이나 6인실로 하고 싶다. 연수실에는 최신의 시청각 설비를 도입했으며 하고, 창틀은 알루미늄샤시로 하고 싶다는 등이다. 국가의 재정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장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所長 藤村和男)

II. 주취사업

청년의 집의 사업에는 주취사업과 위탁지도사업이 있다. 주취사업은 청년의 집이 자체적으로 기획, 실시하는 것인데,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30년간의 주취사업을 살펴보면 선구자로서의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즉, 청년의 집의 성격의 추구와 그 기능과 역할의 확립에 힘을 쏟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발자취인 것이다. 이하 자료를 토대로 30년간의 과정을 서술하여 기록에 남기고자 한다.

1959년도

후지산록에 “단체숙박훈련을 통해 건전한 청년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국립청년의 집 제1호로 국립중앙청년의 집이 탄생했다.

성대하게 거행된 개소식, 그 흥분도 가라앉기 전인 1개월 뒤인 10월 20일에 주취사업 제1호 “가을의 후지·하코네를 탐방하는 근로청년의 모임”이 1박 2일로 개최되었다. 국립청년의 집 제1호였기 때문에 청년의 집이 개소되었다는 것, 청년의 집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러 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본년도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음의 방향으로 사업을 기획했다.

- (1) 전국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연수를 위한 사업
- (2) 후지산록이라는 본소의 자연환경조건에 적합한 사업
- (3) 근로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사업

이해에는 10종류 21건의 주취사업을 실시하여 약 1,100명의 청년의 참가했다.

1960년도

제2숙사의 개설에 따라 수용정원은 550명이 되었다. 또한 후지 太郎坊캠프장의 개설, 풀의 개수가 이루어져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 개소 1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으며 주취사업도 514건으로 증가했다.

그 내용도 체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활동을 비롯하여 연극지도, 독서지

도, 국제사정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있었고 참가대상도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비롯하여 부인, 기업주, 직장 체육후생 담당자, 외국청년 등 다양했다. 주로 청년의 집을 외부에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둔 사업이 많았고 참가자는 2,89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급증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청년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전국청년학생대회”로서 池田수상이 방문하여 “청소년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것이다.

1959, 60년은 새롭게 설치된 청년의 집의 PR과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개발을 목적으로 주최사업을 실시하여, 말하자면 모색의 2년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직원은

개소후 1,2년간은 개최요강의 인쇄, 방명록, 참가자의 접대 등의 연속이었다는 느낌이다. 청년의 집이란 무엇인가, 어떤 시설인가 하는 것이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그 PR을 위해 주최사업을 개최하여, 전국의 지방교육위와 공민관 등에 보낸 개최요강의 발송전수는 한 사업당 약 1,500통으로서 전 직원이 연일 메달렸다.

고 말하고 있다.

1961년도

조금씩 이용자도 증가하여 그에 대한 지도의 충실을 기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초에는 31건의 주최사업을 계획하였지만 연도 도중에 22건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

주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참고했다.

- (1) 전국적인 연결을 가진 사업일 것.
- (2) 청소년교육상 교육효과가 큰 사업일 것.
- (3) 지역 청년단체, 청년학급의 활동 등 청소년육성의 실제활동과 연결될 것.
- (4) 청년단체 간부와 중견청년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할 것.
- (5) 정기적으로 또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될 수 있는 것.
- (6) 매년 평균화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
- (7) 청년의 집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

당시 전국 각지에는 공립 청년교육시설이 이미 50개소를 넘고 있었다. 따

라서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회의 실시를 요망하는 소리도 있고 해서 이해부터 “전국 청년의 집 직원연수”가 기획·실시되었다.

또한 본년도의 주최사업의 반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전국적인 규모의 참가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 참가한 청년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여러 활동의 중핵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것이 청년의 집을 확산시키는 에너지가 되고 있다.

1962년도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지도의 충실을 기하는 한편 주최사업의 강화를 기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때문에 주최사업을 전년도의 절반에 가까운 14건으로 하는 등 정리, 충실을 기했다. 또한 주최사업의 기획, 입안 및 실시상의 기본방침으로서 다음의 다섯항목을 정했다.

(1) 원칙적으로 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규모의 사업일 것.

(2) 각 사업 모두 공동숙박생활 체험을 통한 훌륭한 사회의 형성자로서의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해 표준일정을 4박5일로 할 것.

(3) 시설·설비를 충분히 활용하는 사업일 것.

(4) 후지산특이라는 웅대한 입지조건을 활용하는 사업일 것.

(5) 청년단체, 청년학급 운영기술강좌는 2강좌제로 하여 계속해서 수강할 수도 있고 선택해서 수강할 수도 있도록 조치하고 지방에 있어서의 지도자 양성계획과 부합되는 것을 실시할 것.

또한 각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주임강사 및 강사보좌제를 채용하여 외부로부터 강사를 의뢰하여 전 일정을 통하여 지도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강사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주최사업의 취지, 목적이 연수 프로그램의 모든 강사들에게 철저히 숙지되어 일관된 지도가 전개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참고로 본년에 2회째를 맞은 청년학급 운영기술강좌를 보면 기간은 4박5일 참가자는 22지역으로부터 60명에 이르렀고, 청년학급의 관리운영과 집단 운영에 관한 강의와 반별 토의가 행해졌다. 또한 참가자의 평가도 사업의 기획, 운영, 일정, 강사 및 청년의 집에서의 생활에 관해서 “좋았다” “좋은 편이었다”를 포함하여 90%대의 평가를 얻어 기본방침이 준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61, 62년도의 2년간은 청년의 집의 성격과 청년교육에 있어서

의 위치가 검토되고 주최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성이 발견된 시기였다.

1963년도

본년은 두번째의 국립청년의 집으로서 熊本현에 阿蘇청년의 집이 개소되었다.

그에 따라 당소의 주최사업은 그 참가대상의 범위를 전국 전역으로 해왔지만 본년도부터는 원칙적으로 九州, 四國, 中國의 각 지방을 阿蘇청년의 집이 담당하고, 關西以東의 지방을 당소의 대상지구로 하였다. 청년의 집 이용자가 전년에 비해 약 1할 증가하여 이들 이용단체의 연수내용과 생활지도를 한층 충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청년의 집의 기능과 역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최사업 청년 공동숙박 담당자 연수회가 처음으로 기획, 실시되었다.

또한 국립청년의 집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3년제를 맞이하여 본년도부터는 청년의 집 직원 장기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참가자의 공동연구테마는 “청년의 집의 성격”으로서 청년의 집이 어떤 계기에서 기획되어 어떤 경과를 거쳐왔으며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성격은 어떻게 변용되어 왔는가에 관해서 연구를 행했다.

1964년도

개소 5주년을 맞았다. 일반이용자도 연간 12만인(연속박자)에 이르렀고 주최사업의 참가자도 증가해 왔다.

청년의 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년도부터 개최했던 청년 공동숙박연수 담당자연수는 본년부터는 청년 공동숙박연수 운영기술강좌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숙박연수의 계획과 실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집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국립청년의 집 직원 장기연수는 2년째로서 공동연구 테마를 “청년의 집에 있어서의 생활지도의 연구”라고 하여 생활지도의 목적, 영역, 지도 계획 등을 다루어 왔다. 이들 연구의 정리(1963, 1964년분)는 본년부터 창간된 당소의 연보 제1호에 수록되어 국립청년의 집을 비롯한 관계방면에 배포되어 참고가 될 수 있게 하였다.

본년도부터 주최사업 외에 어린이날과 문화의 날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강연, 영화, 음악회, 게임 등의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 당일이용의 전 단계에게 알려져 참가를 요청하고 널리 교류를 도모했다.

1965년도

과거 5개년(청설기라고 할 수 있다)에 있어서 청년의 집의 성격과 기능, 생활지도의 방식 등에 관한 구명과 함께 주최사업에 관해서도 연구가 행해져 주최사업의 정형화를 지향하고 그 내용, 방법 등의 충실을 기했다고 할 수 있다.

본년도의 주최사업은 164건이 실시되었는데 그 기획에 있어서는,

- (1) 청년학급, 청년단체 등의 청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
- (2) 공립청년의 집 직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 (3) 당소의 특질을 살리기 위한 사업 (후지산 등산).
- (4) 당소를 이용하는 각종단체, 기업단체 교육담당자의 사전연수를 위한 사업.
- (5) 전국적 규모에서 본소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청년교육관계사업에 대한 협력을 위한 사업의 5가지를 기본으로 했다.

또한 행사교육사업으로서 국민의 축제일 등을 택하여 당일 연수중에 있는 전 연수자를 대상으로 강화, 대담 등의 모임을 10회 실시했다. 그 결과 단체간의 교류, 친목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본년도 청년의 집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연수는 “청년의 집에 있어서의 생활지도의 실제”를 연구테마로 하여 ①연수계획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②생활지도의 실제 ③연수생의 반응의 세 측면에서 관찰을 통하여 생활지도의 가능한 범위와 지도상의 유의점을 연구했다. 그 결과는 당소의 연보 제2호에 게재되었다.

1966년도

본년도는 전년도까지 실시해 온 사업을 정리, 통합하는 외에 새롭게 “청년그룹 교환연수”를 기획했다. 또한 전년도의 기본적 이념을 계승하여 “전국어린이회 등 소년단체육성 지도위원 연구협의회”와 “결손가정아동 육성지

도자 연구협의회”의 두가지를 주취사업으로 했다.

행사교육사업은 본년도부터 중지하고 대신에 “사회교육 가이던스”를 실시했다. 주로 기업 단체연수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에 이 시간을 필수로 부과하여 청년의 집 이용의 조건으로 했다. 이것은 청년의 집이 자체의 교육의도를 이용자인 연수단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것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교육내용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공교육으로서의 사회교육과 기업내 교육의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년의 집 직원 장기연수는 연구레마를 “청년의 집에 있어서의 학습지도의 일고찰”로 하여 청년의 집에 있어서의 학습과 생활지도와의 관계에 관해서 고찰했다. 이것은 “생활지도의 지향점”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당소의 연보 제3호에 게재되었다.

1967년도

전년도까지가 주취사업은 정형화하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본년은 4월1일, 국립청년의 집 사업의 방식에 관한 기준이 명확화되어 당소의 주취사업이 다음의 단계로 옮겨간 해이다. 국립 청년의 집은 阿蘇에 이어서 磐梯(福島현), 大靄(北海島)과 당소의 네곳이 되었다.

그에 따라 문부성 사회교육국장의 명의로 「국립 청년의 집 관리운영에 관해서」의 통지가 통보되었다. 이 통지에는 국립청년의 집의 교육목표가 명시될과 아울러 사업에 관해서도 “국립청년의 집은 단체 숙박훈련에 의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고 하여 ①단체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사업 ②직업인,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③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사업 ④그밖에 건전한 청년의 육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하고, “국립청년의 집 소장은 앞에 명시된 사업의 촉진을 위해 주취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년도의 주취사업은 전년도까지 정형화된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했다. 그에 따라 한 해만의 단발적인 사업은 편성하지 않고 주취사업의 방법, 형태에 약간 새로운 방향을 채용했다. 그것이 “그룹교류”의 형태였다. 이 그룹교류의 방식은 당소의 주취사업으로서 본년에 처음 채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본년도에도 청년의 집 직원연수는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실시했는데 특히 장기연수는 국립사회교육연수소와 공동으로 “생활지도”의 내용과 그

구체적 전개방법 등에 관해서 sensitivity training방식을 채용하면서 청년의 집의 교육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수를 진행하였다.

한편, “숙박연수 운영담당자 강좌”에서는 일반이용을 한층 충실히 함과 아울러 연수내용의 방향설정을 목표로 하여 실시하였다. 본년도의 참가자중에는 고등학교 등의 학교관계자가 증가하여 학생의 생활지도의 장으로서 청년의 집이 교육적으로 위치지워졌다고 할 수 있다.

1968년도

전년도에 이어 “단체숙박훈련을 통해 계획적으로 청년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기본목표를 설정해서 13건의 사업을 기획했다. 본년도의 신규사업은 “청년 스케이트연수”와 “전국 여자청년 교양강좌”였다.

청년스케이트연수는 업동기의 사업으로서의 독특성을 강조했다. 전국여자청년교양강좌에는 전국 각지의 직장, 직종의 170명의 참가하였고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청년의 집 직원 장기연수는 내용과 방법의 양면에서 “스스로 체험함으로써 배운다”는 방침으로 참가자가 당소의 직원이 되어 3주간 청년의 집의 기능과 학습전개를 위한 각종 지도법에 관해서 연구하고 실습을 거듭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본년도에는 “국립청년의 집의 주최사업은 무엇인가”와 같은 논의가 직원들 사이에서 자주 행해졌고 주최사업을 입안, 계획, 실시하는 즐거움이 청년의 집 직원으로서의 보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연수생 한사람 한사람에게 기대되는 객관적인 과제와 연수생의 현실의 생활에서 비롯되는 청년으로서의 주관적인 관심과 요구를 어떻게 수렴하는가가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의 과제라는 것이 의식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1969년도

개소 10주년. 그것은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당소의 이용자도 일정한 숫자에 달하게 되었다.

한편, 주최사업에 있어서도 이 10년간은 시행착오와 함께 몇가지의 변천을 거듭해 왔다. 이 변천은 단순한 사업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청년의 집이

라는 사회교육시설이 스스로의 교육의식을 발전시켜 온 과정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년의 주취사업은 전년도의 그것을 이어받아 ①청년단, 청년학급 등의 리더양성에 관한 사업 ②청년의 집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③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 리더의 양성에 관한 사업 ④청년의 집을 이용하는 각종 단체, 기업체의 교육관계 담당자를 위한 사업 ⑤국립중앙청년의 집의 특수성에 기초한 사업 ⑥전국적 규모로 실시되는 청년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기획, 실시했다.

전국청년학급생대회는 개소 이래 당소를 대회장으로하여 개최되어 온 관례로 당소는 전국 청년학급생의 메카적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본년에는 대규모적인 개축공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국 본 대회는 청년학급 발상지인 국립 磐梯청년의 집으로 대회장으로 옮겼다.

주취사업에 참가한 청년들이 동창회를 만들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였고 연수성과의 누적되어 감에 따라 청년의 집의 운영과 청년교육의 발향설정에 두드러진 발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도

본년도의 주취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전년도의 것을 계승하여 12건의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다음의 두 사업은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

즉 “청년의 집 직원 단기연수”는 4년째를 맞이하여 “청소년관계시설직원 연수”로 명칭을 변경하고 참가대상을 국립청년의 집 직원만이 아니라 근로청소년 홈 등의 직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전년까지 실시해 왔던 “청년스케이트연수”도 종목을 한정하지 않고 “청년레크리에이션연수”로 통합함과 아울러 레크리에이션 리더의 양성을 꾀했다.

나아가서는 과거 9개년간에 걸쳐서 실시되어 온 “중견청년연수-20세의 만남”은 그 참가자가 900명을 넘어서서 그 동창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중견청년대회”를 실시했다.

또한 전년도 국립 磐梯청년의 집에서 실시했던 “전국청년학급생대회”는 본년도는 당소에서 개최했다.

1971년도

본년 4월30일 사회교육심의회는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교육의 방안에 관하여」를 문부대신에 답신했다.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것이 사회교육상에 어떠한 과제를 놓고 있는가를 개관하고 생애의 각 시기에 있어서의 사회교육의 과제를 명확히 했다. 특히 청년에 관해서는 심신의 단련과 규율, 협조의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청년의 집 등의 시설의 정비, 충실과 재학청년의 교외에 있어서의 각종의 단체활동과 청년의 집 이용 등에 의한 사회적 도야의 장의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것을 배경으로 본년도는 주취사업의 영역을 ①청년학급, 청년단체 등 청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 ②직장인,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③시설의 특질에 기초한 사업 ④공립청년의 집 등 사회교육시설 직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⑤시설을 이용하는 학교·기업체 등의 교육 담당자의 사전연수를 위한 사업 ⑥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⑦그밖에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12건의 사업으로 실시했다.

앞서 설명한 사회교육심의회와 답신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신규사업도 2건 가획했다. 하나는 “有志청소년지도자대회”로서 자원봉사자의 양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시에 있어서의 청년단체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종래의 “청년단체간부연수”를 중지하고 “도시청년단체지도자연수”를 실시했다.

1972년도

국립청년의 집은 전국적으로 10개소가 되었다. 또한 청년의 집의 관리운영에 관해서 사회교육국장의 통지가 새롭게 나왔다.

본년도의 주취사업은 청년교육 지도자의 양성을 지향하여 편성되었다. 사업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아래의 기본방침을 토대로 기획, 입안하였다. 또한 본년도는 사업의 고도화와 장기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관계기관의 기능분담을 감안하여 사업수를 감소시키기로 했다.

- (1) 청년의 집이 지닌 교육의도를 구현하고 그 실현을 도모한다.
- (2) 청년의 생활과제, 학습요구와 사회로부터의 요청에 부응한다.
- (3) 일반교육의 효과적 전개를 기한다.
- (4) 청년교육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5) 청년교육의 장래적 과제에 부응한다.

또한 주취사업의 유형별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적 전문연수

청년교육의 복잡성, 곤란성을 감안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지도자의 양성을 위하여 청년교육 지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 분야에 관해서 계통적으로 장기에 걸친 연수를 행한다.

“청년의 집 직원 장기연수”

“청년지도기술전문연수”

(나) 전국적 규모의 연수

청소년활동 리더로서 필요한 단체활동, 학습활동에 관한 지식, 기법 및 태도에 관해서 연수를 행함과 아울러 전국적 규모의 청년의 교류를 행한다.

“전국청년단체지도자연수”

“전국소년단체지도자연수”

“전국직장, 직종청년리더 연수”

“전국중견청년연수 - 20세의 만남”

(다) 입지조건외 특성을 살린 연수

청년의 집이 지닌 자연환경을 증시하여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행한다.

“청년야외활동연수 - 후지산 등산연수”

(라) 오늘날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연수

중앙교육심의회, 사회교육심의회와 답신의 취지를 청년의 집의 교육에 도입하여 오늘날의 요청에 부응하고 장래에 그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연수를 행한다.

“고교생연수 - 리더쉽 트레이닝”

1973년도

본년도의 주취사업도 기본적으로 과거 사업의 실적과 반성을 토대로 기획, 입안되었다. 단지 국립청년의 집이 증설되어 감에 따라 유사한 주취사업이 다른 국립청년의 집에서도 실시되어 사업의 중복이 문제시되었다.

그때문에 문부성은 청소년교육과장의 명의로 “국립청년의 집의 사업실시에 있어서 주된 대상이 되는 지역구분의 설정에 관해서”라는 통지를 보냈다. 이른바 청년의 집의 “area제”의 실시이다. 이것에 의해 일단 각 국립청

년의 집의 대상범위가 정해져서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주최사업(청년단체 리더 연수 등)에 관해서는 지정된 지역내에서 중점적으로 PR하고 참가자도 원칙적으로 그 블럭내에서 받아들여도록 규정되었다. 이 지역구분의 결정에 따라 에어리어 내 縣교육위원회 및 공립청년의 집과 청년교육의 추진을 위해 상호 제휴협력해 가는 체제가 강화되어 갔다.

한편 그에 수반하여 당소가 행하는 전국적 사업과 연락조정 기능이 재인식되게 되었다. 그 결과本年도의 특징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①사업이 정선되어 연간 6 사업이 되었다 ②사업의 장기화 ③사업내용의 충실 ④지도자료의 작성 등이다.

특히 지도자료의 작성에서 전년도까지 사업실시상 결락되었던 수강자에 대한 자료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본년도부터 직원이 집필하여 “전국청년단체지도자연수”에는 「집단활동의 전개를 위해」 “고교생리더연수”에는 「인생 속에서 고교생시대」라는 자료를 발행하여 참가자에게 배포했다. 이에 따라 퇴소후에도 일상활동과 자기학습에 도움이 되어 호평을 받았다.

또한 본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실험지정단체 위촉사업”을 기획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청년의 집을 청년교육의 장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단체를 위촉하여 청년의 집과 위촉을 받은 단체가 협동연구를 통해서 청년교육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4년도

4월26일 사회교육심의회는 이제까지 불충분했던 재학청소년(소·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학생)에 대한 사회교육의 방안 특히 가정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제휴의 방안을 명확히 한 「재학청소년에 대한 사회교육의 방안」을 문부대신에게 건의했다.

한편 「1974년도 국립청년의 집 주최사업 실시방침」이 문부성사회교육국장의 명의로 통보(1973년 12월 4일부)되어,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①연간 주최사업은 6건으로 할 것 ②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것. 가)청년단체지도자연수사업, 나)집단숙박지도에 관한 연수사업, ③④⑤ 생략.

또한 「국립청년의 집에 있어서의 청년단체 지도자 연수기준에 관하여」가 각 지방행정단위, 지정도시 교육위원회 교육장 앞으로 문부성 사회교육국장 명의로 통보되어 1974년도부터 국립청년의 집의 주최사업의 하나로서 청년

단체의 상급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실시되게 되었다.

당소에서도 청년단체 지도자의 연수는 청년단체운영기술강습회 등의 명칭으로 1961년 이래 실시되어 왔는데, 본년도부터는 초급(市町村단계), 중급(都道府縣단계), 상급(국립청년의 집)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연수내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년도는 주취사업의 흐름에서 하나의 변혁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본년도의 주취사업은 조사연구활동과의 관련성을 증시하고 일반연수의 보급효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방침으로 기획되었다.

즉 ①전국적인 청년 상호의 교류의 장을 제공함과 아울러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질을 높인다 ②청년의 집 직원 등 청년교육 담당자의 현직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능력의 개발을 꾀한다 ③재학청년에 대한 숙박연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숙박연수의 방안에 관해서 연구하고 앞으로의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본년도도 연수자료 「청년단체활동 발전을 위해서」를 발간했다.

아울러 지역구분의 개정이 행해져 당소는 8현에서 6현으로 주요 대상지역이 변경되었다.

1975년도

본년도도 문부성 사회교육국장 명의의 「국립 청년의 집 주취사업 실시방침」과 전년도에 반성점을 토대로 여섯사업을 기획했다.

한편 국립청년의 집이 전국 각지에 생겨나서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에 있었다. 그 때문에 국립청년의 집에 있어서의 사업은 이것과의 관련을 증시하여 일반적으로 리더의 양성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였다.

또한 당소의 창설기에 비하면 사업수는 감소되었지만 개별사업의 충실을 추구하여 점차 장기화, 고도화, 전문화의 방향에서 내용이 정선되게 되었다.

본년도의 주취사업은 그 영역을 ①청년단체 등의 지도자의 자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업 ②당소의 입지조건을 살린 야외활동사업 ③청소년교육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꾀하기 위한 사업 ④현대사회의 요청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했다.

또한 청년의 집에 있어서의 숙박연수를 효과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청년의 집의 기능 등을 이해시키기 위한 사업은 “숙박연수운영담당자강좌”라든가 “고등학교집단숙박담당자연수”의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본년도부터 “집단

숙박지도담당자연수”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본년도의 주최사업 실시후의 반성으로서는 學社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육성이 급선무라는 점, 또한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도자료를 한층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1974, 75년에 걸쳐서도 연구가 계속되었다. 청년의 집 이용단체 모델활동 실험 위촉사업은 「청년교육의 원리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그 성과가 발표되었다.

1976년도

본년도는 이제까지의 주최사업의 실적과 반성에 입각하여 청년의 집이 지년 기능을 한층 높이기 위해 조사연구활동과의 관련성을 증시하였으며 일반 연수사업으로의 파급효과도 고려하여 기획했다.

또한 당소의 주최사업은 청년지도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를 청년교육의 방법, 형태와 장의 관계에서 파악하여 각 사업이 어떤 영역에 속하는가를 명확히 하고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실시상에는 다음의 점에 유의했다. ①지도자료의 작성 ②연수收錄의 작성 ③토의, 실습의 중시.

1977년도

본년도의 주최사업 실시방침은 전년도의 방침을 크게 변경하여 문부성 사회교육국장 명의로 통보되었다.

즉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의 제휴를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사업 및 청년단체활동의 촉진,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지도자 연수사업에 중점을 둔과 아울러 그 성과를 공사립 청년의 집에 파급시키는 것, 연간 사업수는 6사업으로 하지만 12사업을 실시해도 무방하다는 것, 종래의 사업에 덧붙여 공사립 청년관계시설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실시에 배려하는 것 외에 사업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박4일 이상으로 할 것, 또한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각 국립청년의 집간의 연락조정을 도모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일부 생략)

이것을 지침으로 당소의 사업도 그 목적을 ①입지조건을 살린 야외활동 등에서 부터 ②청년지도자의 양성 ③청년의 집 직원 등 청년교육 지도자의

현직연수 등으로 기획했다.

사업의 내역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도자 양성사업이 3사업, 청년교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현직연수가 3 사업으로 모두 6 사업이었다.

또한 연수자료로는 “집단속박지도담당자연수”를 위해 「고교생의 집단속박연수」를 발간했다.

1978년도

본년도의 국립청년의 집 주최사업 실시방침은 전년도의 방침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공통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과 총래의 “집단속박지도에 관한 연수사업”과 “청년단체 지도자 연수사업”에 덧붙여 “공사립 청년관계시설직원은 대상으로 하는 연수사업”이 추가되었다.

본년도의 주최사업은 그 목적을 ①청년단체 지도자의 자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업 ②청년지도 담당자의 자질의 향상을 꾀하기 위한 사업 ③현대 사회의 요청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 ④입지조건을 활용한 야외활동사업으로서 기획했다.

사업명에 있어서도 그 목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했다. 예를 들면 총래에는 “청년의 집 직원연수”였던 것이 본년도부터는 “공사립 청년관계시설 직원연수”로 변경하였다.

주최사업의 전개에 있어서는 주최사업을 통해 청년의 집의 모델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직원들이 일체가 되어 노력했다. 또한 「청년단체 지도자를 위해서」가 관계자들의 집필로 발간되어 “청년단체지도자연수”의 교본으로 활용되었다.

1979년도

9월 19일 황태자, 同妃를 맞이하여 성대하게 개소2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 20년간(1959~79)에 개최된 주최사업은 총 270사업, 참가자수는 약 21,000명에 이르고 있다.

개소 당시는 청년의 집을 홍보하여 후일 청년의 집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주요목표였다. 이후 사업의 목표는 청년의 집의 기능과 성격, 역할의 확립에 노력하여 국립청년의 집의 사명, 청년교육에서 담당하는 역할의 자각, 새로

은 프로그램의 개발, 청년교육의 선구적 사명의 의식화로 점차 변천하여 20년을 맞이하는 본년도에는 새로운 과제의 발견과 그 해결을 향한 결의에 불타는 해가 되었다.

본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방침으로 6 사업이 실시되었다. 특히 “공사립 청년관계시설 직원연수”는 6박 7일로 장기화된 것과 (社)전국청년의 집 협의회와 공동주최로 개최된 것이 특색이다.

1980년도

주최사업의 목표를 청년의 집의 선도적인 교육내용, 방법의 개발에 두고 ①청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 ②청년교육지도자의 현직연수사업 ③입지조건을 활용한 야외활동 등 3 영역 6 사업으로 기획했다.

특히 본년도부터 새롭게 산업교육을 테마로 설정하여 80년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한 산업상의 과제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킴과 아울러 각 직종에 있어서의 근로청년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산업청년지도자연수”를 실시, 사회교육관계자의 관심을 모았다. 본사업은 당 청년의 집의 개소기념사업으로서 개소기념일에 실시했다.

1981년도

본년 5월9일 사회교육심의회는 7년에 걸친 청소년의 덕성의 함양에 관한 심의의 결과인 「청소년의 덕성과 사회교육」이라는 제목의 답신을 문부대신에게 제출했다.

청소년의 의식, 행동의 경향을 명확히 하고 발달과제와 교육적 배려를 역설하고 인간형성을 위한 청년의 집의 적극적 이용, 자연과의 접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설의 정비, 충실을 도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이다.

또한 6월11일에는 중앙교육심의회가 「생애교육에 관해서」를 문부대신에게 답신했다. 이것은 생애교육의 시점에서 금후의 교육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덕성의 함양과 아울러 관계방면에서 요청되고 있었던 과제였다.

한편 각국립청년의 집 소장앞으로 보낸 문부성 사회교육국장 통지 「국립청년의 집 주최사업의 계획, 실시에 관하여」는 종래와 동일했지만 본년도는 주최사업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각 국립청

년의 집이 그 이용상황, 지역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는 시설소개를 위한 사업 등의 주최사업은 계획작성의 방침 및 계획, 실시, 보고에 있어서 유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주최사업의 특례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배경으로 본년도의 주최사업은 직원조직을 총동원하여 시설설비, 교재교구 및 입지조건을 풀로 활용하여 기획하고 실시했다.

각 사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집단속박지도담당자연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연수와 신입사원 연수의 두가지 테마로 대상별로 실시되었다. 또한 “청년단체지도자연수”에서는 關東중부를 서비스 지역으로 하는 국립赤城청년의 집과 공동사업으로 대상지역을 關東 甲信越靜의 1도 9현 3지정도시로 확대하였고 1회의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국립 올림픽기념 청소년 종합센터의 협력을 얻어 각기마다 연수장을 이동시켜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1982년도

당소의 주최사업은 사업의 선도적인 시행을 통해서 공사립 청소년교육시설에 대한 조언, 지도에 도움이 될과 아울러 공사립 청년교육시설의 직원, 청년단체 지도자 등의 양성연수를 행하고 청소년교육관계 지도자의 자질의 향상을 꾀하는 데 있다.

이것을 기초로 다음의 4분야를 고려했다. ①청소년교육에 관한 지도자의 연수와 양성사업 ②청소년의 자기계발과 광역적인 교류를 꾀하는 사업 ③사회에 개방된 청년의 집으로서의 사업 ④그밖의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사업 등이다.

사업의 전개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내용의 편성, 방법의 개발, 강사의 발굴 등에 있어서도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본년도부터 각 都道府縣이 행하는 청년의 국내연수를 일정한 기간으로 통합하여 당 청년의 집을 대회장으로 교류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스센터 페스티벌 Fuji”를 실시했다. 또한 청년의 집을 홍보하기 위해 시설개방 “청년의 집 축제”를 개최하여 호평을 얻었다.

1983년도

본년 10월19일 「국립청년의 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1972. 4. 27부 文社

靑 제105호 문부성 사회국장 통지)가 폐지되고 새롭게 “국립청년의 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가 제정되었다.

본년도는 주최사업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①부모자식간의 대화를 증진시키려는 사람을 위해 ②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는 청년을 위해 ③자원봉사자를 지망하는 사람을 위해 ④폭넓은 지도력이 있는 교원을 지향하는 사람을 위해 ⑤야외활동의 지식, 기술의 향상을 위해 ⑥국제성을 함양하려는 청년을 위해 ⑦청소년교육시설 직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⑧그밖의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년도는 8 사업을 기획, 실시했다. 특히 전국 청년학급생대회가 각 국립청년의 집을 순회하며 개최되어 오다가 전국을 일순했기 때문에 명칭을 “배우는 청년 전국집회”로 하여 다시금 각 국립청년의 집을 순회하기로 하고, 그 개칭 제1호의 사업을 주최사업으로서 실시했다.

또한 그를 위해서 전년도에 실시했던 유스센터 페스티벌 Fuji는 쉬기로 했다.

1984년도

전년 10월 19일부로 「국립청년의 집 주최사업의 계획·실시에 관하여」의 문부성 사회교육국장 결재가 폐지되고 「국립 청년의 집에 있어서의 주최사업의 계획·실시의 유의사항」이 문부성 사회교육국장 통지로 결정되어 본년도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이 내용은 연간 6사업을 실시할 것, 계획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특별히 유의할 것, 즉 ①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사업을 개발할 것 ②시설 기능을 활용한 특색있는 사업의 개발 ③예를 들면, 1주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사업의 실시 ④규정된 지역구분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요점만 정리).

또한 당소에 있어서도 전년 10월에 국립중앙청년의 집 주최사업 방침이 소장 결재로 정해져서 본년도의 사업의 기획·실시에서 적용되게 되었다.

그 취지는 국립청년의 집의 역할의 주안은 그 주최사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시행을 하여 공사립 청소년 교육시설의 사업에 대한 조언·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공사립 청소년교육시설 직원, 청년단체 지도자 등의 양성 연수를 하여 청소년교육관계 지도자의 자질의 향상을 꾀하는 데 있다(중략).

이들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일상적인 연수지도사업 외에 연간 6건 이상의 주최사업을 실시하여 내용의 편성, 방법의 개발 등에 있어서 과급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주최사업의 분야를 ①청소년교육에 관한 지도자의 연수와 양성사업 ②청소년의 자기계발과 광역적인 교류를 꾀하는 사업 ③사회에 개방된 청년의 집으로서의 사업 ④그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사업의 4분야로 구분했다.

본년은 개소 25주년으로서 기념사업으로서 “유스센터 페스티벌 Fuji”가 부활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교원지방자를 위한 야외활동강좌(전·후기)”와 “청소년교육시설 자원봉사 지방자를 위한 야외활동강좌(전·후기)”를 실시했다. 나아가서는 “후지산을 탐구하는 4계절의 모임”으로서 봄·여름·가을·겨울에 각각 계절의 특색을 살려서 실시하여 호평을 받았다.

1985년도

본년은 국제청년의 해로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전개되었다.

본소의 주최사업에 있어서도 국제청년의 해를 기념하여 “21세기를 담담할 신세대의 모임”과 “유스센터 페스티벌 Fuji” 및 “후지등산”의 세사업을 실시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청년이 집 축제전야에 “부모-자녀, 3세대의 만남”을 기획하여 부모-자녀 혹은 3세대와 다른 가족과의 교류를 도모했다.

또한 이해에는 “準사업”으로서 “제4회 청년의 집 축제” “겨울을 이긴다(검도연수회)”외에 가족이용 특별기간도 설정하여 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했다. 국민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부모-자녀 3세대의 만남”과 “부모-자녀 캠프”사업은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아서 사업기획의 의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1986년도

주최사업은 소장결재(1983년 10월)의 방침에 따라서 10가지를 기획하여 실시했다. 겨울에 단련하는 “검도연수회”는 궁도장이 완성되고 단체로부터의 강한 요망도 있고 해서 “무도의 모임”이라고 하여 검도, 유도, 공수도, 궁도의 4항목을 종목별로 실시했다.

“집단숙박지도자 연수”는 고등학교 등의 숙박연수와 기업 등이 행하는 숙박연수는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론편에서는 함께, 각론에서는 나누어서 전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야외활동강좌는 대상을 교원, 야외활동지도자, 청소년 교육시설 자원봉사자 등을 지망하는 사람들로 하여 전기에서는 야외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수를 후기에서는 이론 연수를 행했다.

1987년도

본년도도 소장결재(1983년 10월)에 의거하여 사업을 기획했다.

본년도에는 1975년도부터 실시해 온 “청년단체지도자 연수”가 청년단체 활동의 정체현상으로 말미암아 참가자가 감소하여 중지했다.

그 대신에 생애교육의 진흥 특히 사회체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도자의 양성을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청소년 지도자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세대간 교류의 촉진사업으로서 “청년의 집의 축제” “캠프” “향토 완구만들기”의 세가지를 실시했다.

나아가서는 “청소년교육시설직원연구협의회”는 종래까지는 5~6박이었지만 장기간 실시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본년도부터 10박 11일의 기간으로 하고 또한 연수의 테마를 세가지로 나누어 기획·실시했다.

또한 전문을 넓히는 의미에서도 연수회장을 중앙청년의 집에서 벗어나 靜岡현 立焼津청소년의 집으로 이동했다.

1988년도

본년도는 10가지의 주최사업을 계획했다. 그 입안에 있어서는 소장결재에 의거했다. 교직지망자, 자원봉사 지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서 전기에는 “교직지망자를 위한 특별강좌”를, 후기에는 “자원봉사 지망자를 위한 야외활동강좌”로서 2기로 나누어서 실시했다. “유스센터 페스티벌 Fuji”에서는 국제교류를 메인 테마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일본 유학생을 초대해서 교류를 심화하였다.

또한 “청소년 교육시설 직원 연구협의회”는 “생애학습사회를 맞이한 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함”을 주제로 해서 세가지의 테마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동연수는 千葉현립 舞鶴청년의 집을 회의장으로 해서 실시했다.

1989년도

전년 10월까지 주취사업을 기획하는 기초가 되었던 1983년도 소장결재가 세부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불안전했고, 아울러 중앙청년의 집의 활성화와 이용촉진을 도모하고 생애학습사회를 맞아서 그에 대응하는 주취사업의 실시가 요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국립중앙청년의 집 주취사업의 기획에 있어서의 기본방침」(63.11. 1 소장결재)을 확정했다.

즉 업무의 분야를 ①고교생, 대학생, 근로청년 등의 청년의 단체활동의 촉진, 충실을 도모하는 사업 ②청소년 교육시설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③기업 및 청년단체의 청년교육지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④그밖의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했다.

또한 기획의 시점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8가지를 고려했다.

①청년의 인간형성에 필요한 “풍부한 체험”을 제공한다. ②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입지조건을 살린다. ③국제적 시야와 풍부한 국제감각을 배양하고 상호교류를 심화시킨다.(개략, 이하 5가지는 생략)

본년도는 개소 30주년 기념식전이 가을에 거행되는 것을 고려하고, 방침의 변경과 생애학습시대를 맞게 되는 배경도 있고 해서 두가지의 신규사업을 채택했다.

또한 주취사업을 “청년의 교류와 학습을 위해서”를 타이틀로 하여 10가지 사업을 “교류와 학습을 위해서” “출중한 지도자를 지향하며” “후자산 아테 모이자” “청년의 집에서 즐거운 하루를”라는 항목으로 나뉘어서 기획했다. “청년의 집 축제”는 개소 30주년기념으로 거행했다.

또한 본년도에는 청년단체 상급지도자 연수와 교직원지방자를 위한 특별강좌, 자원봉사 지방자를 위한 야외활동 강좌를 증지했다.

청년의 집은 왜, 어떤 이유에서 주취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30년간의 주취사업의 발자취를 당소에서 발행한 소보, 연보, 「10년의 발자취」, 「20년의 발자취」 등을 자료로 하여 지금까지 정리해 봤다.

이 30년간의 흐름 속에서 왜 주취사업을 실시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고 실시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을 담당해 온 선배들의 뛰어난 역량을 통감한다. 30년의 역사를 그대로 계승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며 선배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Ⅲ. 위탁지도사업

이용자가 스스로 기획해서 청소년의 집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당초에서는 “위탁지도사업”이라고 하는데 연간 이용자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1976년까지는 “일반연수”라고 지칭). 30년의 기간중에 위탁지도사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자료에 기초하여 밝히고자 한다.

1959년 4월 14일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설치가 결정되고 같은 해 6월 1일 창설을 위한 사무가 개시되어 9월 19일의 개소식을 거행하기 위해 직원들은 주야에 걸쳐 작업을 진행했다.

동년 9월 4일 「국립중앙청년의 집 이용안내」등 세가지의 규칙 등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용하는 목적은 청년 및 그 지도자가 집단활동을 통해서 사회교양을 높이고 기술을 습득하고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년의 집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도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년의 집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개소식 뒤에는 오직 주최사업만 개최하여 청년의 집의 PR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다. 이 주최사업의 효과는 매우 커서 이를 통해 청년의 집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용신청이 쇄도하게 되었다. 초기의 신청은 학교관계가 많아서 미리 계획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청년단체는 희망대로 기간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1959년에 「국립중앙청년의 집 이용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내규)」를 제정했다. 이 내규는 신청이 수용능력을 초과할 경우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서 이용신청의 접수는 이용기간의 3개월전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960-1982년 생략]

1983년 10월 25일 「위탁지도사업 실시방침」이 소장 재정으로 행해졌다.

그에 따르면, 청년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중태와 변함없지만, 새롭게 소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프로그램에 따라 성인, 부인, 고령자를 주체로 하는 단체의 이용을 인정하였고, 캠프장은 국민학생을 주체로 하는 단체라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청접수 개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초·중학교의 위탁방침과 연간 각 시기의 증점적 수탁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1984년의 이용자는 11만명으로서 전년도보다 2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위탁사업의 목적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정했다. 즉,

- 가. 규율있는 생활체험
- 나. 근로체험, 봉사체험
- 다. 자연과의 만남
- 라. 체력 증진
- 마.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태도형성
- 바. 친목 증진
- 사. 타단체와의 교류
- 아. 교양·지식의 습득, 정보교환
- 자. 기술·기능의 습득

등이다.

1985년도 전년도와 동일한 시각에서 위탁지도사업을 시행했다.

본년도의 이용은 493단체, 113,119명으로서 근로청년이 19.5%로 2할을 접하고 학생이 전년도보다 증가해 67.2%가 되었다. 이런 경향은 1986년도에 피크를 이루어 근로청년이 18.6%, 학생이 67.9%로서 30년간 근로청년은 최소, 학생이 최고의 수자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근로청년이 최고를 나타낸 1969년도와는 완전히 반대의 현상을 보인 것으로서 1969년까지는 7할이 근로청년이었던 것이 17년후에는 7할이 학생으로 되었던 것이다. 시대의 흐름, 사회현상의 변화를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이용상황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1987년도의 위탁지도사업은 1983년 소장재정에 따라 추진되었다.

본년도의 이용상황과 특색은 개소 이래의 연속박자수가 4월에 300만인에 달했다는 것, 외국청년의 이용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청년의 집에도 국제화의 파도가 밀어닥쳐 청소년단체의 초청사업의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이용되는 일이 잦아졌고 주취사업에 유학생들이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용대상별에 따른 구성은 근로청년 19.0%, 학생 67.7%, 지도자 9.6%, 기타 3.7%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위탁지도사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위탁지도사업 실시방침」(1983년 6월 16일 소장결재)에 기초하여 시행해 왔지만, 본년도 이후의 위탁지도사업은 교육행정의 요청에 부응하고 앞서의 소장재정 및 소장결재가 5년을 경과했다는 점 등의 사유에 따라 이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위탁지도사업의 수탁요령(1988년 9월 1일 소장재정)」을 확정해서 실시하게 되었다.

즉,

(1) 한 단체의 구성원을 250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단체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다.

(2) 초·중학교의 위탁에 관해서는 연수목적에 따라 시기를 정했지만 다른 연령집단과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하는 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가족이용 등도 생활·연수조건이 부합되면 받아들인다.

(3) 위탁대상은 청년 및 청년교육 지도자와 그밖에 소장이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과 청소년교육 지도자 및 관계자로 한다.

로 개정했다.

1988년도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해서 연도 당초의 예약상으로는 개소 이래 최저인 10만명선을 기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일체가 되어 이용촉진과 생활조건 개선과 시설의 개량에 노력했다. 그 결과 연속박자 수가 10만명을 내려가는 일은 없었다.

1989년도의 위탁조정은 새로운 소장재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그 결과 연도 당초에 이미 203단체, 8.6만명의 예약에 도달했다. 또한 그 뒤 여름휴가 등의 이용도 증가하여 8월 31일 현재의 예상으로는 큰 사고가 없는 한 본년도는 연속박자 11만명이 당소를 방문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연수지도

1. 연수지도

(1) 교육목표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개소를 눈앞에 둔 1959년 9월 4일 국립중앙청년의 집 이용 규칙, 동 이용절차, 동 이용자 지침이 제정되었다.

개소당초는 청년의 집에 관해서 달리 참고할만한 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한 것인가를 암중모색하는 시기였다고 당시의 직원들은 말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교육목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당시는 이용규칙을 유일한 운영지침으로 삼았다.

1959년 제정된 이용규칙에 따르면, 목적으로서

제1조 국립중앙청년의 집(이하 청년의 집)은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가 집단 활동을 통해 널리 사회교양을 쌓고 기술을 습득하고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이에 기초하여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모토로서 다음 세가지를 내걸었다.

가. 규율을 지키자.

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

다. 무슨 일이든 자진해서 실행하자.

뒤에 교육목표가 정해진 뒤부터는 이 세가지 모토는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생활신조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목표는 1967년 문부성 사회교육국장 통지의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1. 국립청년의 집은 건전한 청년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단제숙박훈련을 통해서 다음의 각 호에서 내건 목표의 달성에 노력하기로 한다.

① 규율, 협동, 봉사 등의 정신을 함양한다.

- ② 자율성, 책임감, 실행력을 익힌다.
- ③ 상호연대의식을 높이고 향토애, 조국애 및 국제이해의 정신을 배양한다.
- ④ 교양의 향상, 정서의 순화 및 체력의 증강을 꾀한다.

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2. 국립청년의 집은 단체숙박훈련에 의해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① 단체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사업.
- ② 직업인,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③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를 위한 사업.
- ④ 그밖에 건전한 청년의 육성을 위한 사업.

또한 운영방침으로서는,

3. 국립청년의 집은 청년의 희망과 국가, 사회의 요청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라고 하여 교육목표, 사업, 운영방침이 처음으로 명기되었다.

1976년에는 앞의 4항외에 “⑤스스로의 과제와 발전과 목표의 확립을 촉진한다”고 하여 1항목을 추가했다.

1978년에는 교육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숙박훈련 및 교육의 방침으로서 프로그램의 중점을,

- ① 유연(자율, 타율)있는 생활.
- ② 자연과의 접촉.
- ③ 벗과의 만남.

등을 체험케 하는 데 두었다. “자연과의 접촉”은 입지조건을 활용한 야외활동 등을 충분히 베풀어 준 것이다.

1984년부터는 교육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3항목을 연수지도를 위한 “목적, 목표”로 발전시켰다.

즉, ① 유연있는 생활체험 ② 근로체험·봉사체험 ③ 자연과의 접촉 ④ 체력증진 ⑤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태도형성 ⑥ 친목의 증진 ⑦ 타단체와의 교류 ⑧ 교양·지식의 습득, 정보교환 ⑨ 기술·기능의 습득 이 그것이다.

(2) 연수지도

청년의 집은 발족당시에는 직업교육의 장이었는데 점차 집단숙박교육의

장으로서는 그 성격이 변모하여, ① 지역에 있어서의 청년활동 ② 기업내 교육 ③ 재학청년의 연수가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함과 아울러, 앞의 ①~③의 이용자수의 비율 및 내용·방법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각 연수단체가 각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부터 사후까지 세밀한 지도와 그에 따른 연수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1959년 4월 14일의 「국립중앙청년의 집 설치에 관한 문부대신 담화요지」에는 당소가 “청년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자주성과 근로, 책임감, 협조성 등의 정신을 배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장”임과 동시에 당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전국의 근로청년들의 연수를 중심으로 한 시설”로 규정되었다. 즉 국립청년의 집은 근로청년을 위한 연수의 “장”으로서 탄생되었는데, 그 효과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1966년 1월에는,

그 사용목적이 국립중앙청년의 집 이용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신청수가 수용능력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접수하기로 한다.

- ①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 ② 이용단체의 관제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지방적, 地區的의 규모의 순위에 따른다.
- ③ 공사의 구분에 관해서는公私의 순위로 한다.
- ④ 근로청소년과 학생에 관해서는 근로청년을 우선한다.
- ⑤ 7,8월의 休日制의 학생단체는 원칙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단지 캠프 연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 하여 우선순위의 「내규」를 제정하였다. 현재 매년 이용하고 있는 몇몇 고등학교도 1973년에 이용규칙이 개정되기까지는 근로청년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충분히 이용할 수 없었다.

유형별에 따른 이용자의 구성비가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수방침도 차츰 변화해 왔다. 첫번째로는 고등학교로의 진학율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점, 두번째는 사업구조상의 변화로서 1955년에 제1차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33%였던 것이 도시로 유입하여 감소되었다는 점, 세번째는 1차 오일 쇼크 등으로 기업의 연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 등에 의해서 1973년에 이용규칙 및 우선순위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다.

주요한 것을 살펴보면 1959년의 이용규칙은,

- ① 청년단체의 단원
- ② 회사공장 등의 직장의 근로청년
- ③ 청년학급의 학생
- ④ 학교의 학생 으로 되어 있다.

1973년의 이용규칙을 보면,

- ① 근로청년
- ② 재학청년
- ③ 청소년 지도자
- ④ 그밖에 소장이 인정하는 자

로 크게 변화했다.

1975년에 들어서면 연수생에게 무엇을 체험시키고 무엇을 함양시키는 가가 점차 명확하게 되어 1977년의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이용의 지침」은 前지도의 방법으로 연수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보다 훌륭한 사회인·직업인으로서의 성장과 시민성의 함양을 지향한다.

(2) 당 청년의 집이 구비하고 있는 시설·설비 및 자연환경의 유효한 활용을 꾀한다.

(3) 기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업무지식·기술습득에만 한정하지 않고 풍요로운 인간적 성장을 지향하도록 한다.

(4) 다른 단체와의 교류를 촉진한다.

(5) 그밖의 유의사항으로서

○ 합동토의, 스포츠 교류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기업연수에 대해서는 주입식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자주연수로서 다음 종목을 연수할 경우에는 30~60분의 사전지도는 필요로 한다. 즉, 스키, 스케이트, 캠프, 등산, 하이킹, 사이클링, 수영 등

(3) 연수계획

1963년의 소보에 따르면 청년의 집 연수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인간관계의 심화이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득하여 공동생활속에서 자신을 계발하고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인생관 확립에 도

움이 되도록 전생활을 계획적 공동체협으로 행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고 언급되어 있다.

이 무렵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한 기업내의 근로청소년 교육에서는 자기 기업의 틀 속에서만 연수계획을 세우는 단체도 있었기 때문에 각 단체의 연수내용을 존중하면서도 1967년의 6월에는 “사회교육 가이던스”를 프로그램 속에 포함하도록 프로그램 지도를 행했다.

당시의 자료에 따르면 “심신이 모두 크게 성장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년기를 충실하게 하고, 사회변화가 현저한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생애에 걸친 학습활동을 위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양성하기 위해” 사회교육 가이던스는 그를 위한 길잡이가 되는 방법·내용·시설 등을 소개한 것으로서 국립중앙청년의 집을 이용하는 의의를 증진시키는 데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1967년의 아용안내에는 연수계획의 방침으로서,

- (1) 연수목적을 분명히 할 것.
- (2) 연수의 진행에 변화를 줄 것.
- (3) 연수참가자의 질을 조정할 것.
- (4) 조직에 관해 연구할 것.
- (5) 세밀한 연수계획을 세울 것.

등을 나열하고, 사전 연수지도와 사후의 평가반성의 중요성도 설명하고 있다.

(4) 연수내용과 방법

개소 2년뒤인 1961년에 국립중앙청년의 집에 있는 시설의 소개를 시작했고, 1962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연수할 수 있는가를 시설, 설비의 소개와 함께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연수회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결정되면 그 다음으로 학습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국립중앙청년의 집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가) 전체집회(토론)

대회형식을 취하는 경우는 강당, 토론형식의 경우에는 대연수실

(나) 분과회 토론

대중소 12분과 회의장

(다) 시청각적 방법

영화, 슬라이드, 테이프 레코더 등을 사용.

(라) 레크리에이션

음악감상, 포크댄스, 합창, 옥내외의 게임

(마) 스포츠

옥외에서는 야구, 축구, 럭비, 테니스, 소프트볼, 수영(여름만), 육상경기

옥내에서는 배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유도, 검도, 핸드볼

야외에서는 스키, 스케이트, 사이클링

(바) 교류회

캠프파이어, 촛불의식

(사) 야외활동

후지산 주변의 하이킹, 버스관광, 후지산 등산, 캠프

이상의 내용을 일정 및 경비에 따라 조합해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961년 10월에 발행된 소보 제5호에는 강의, 토의 외에 청년의 집에 있는 시설·설비가 소개되어 그것을 통해 가능한 연수내용으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

○ 스포츠

소프트볼, 배구, 농구, 수영, 탁구 등

○ 레크리에이션

민속무용, 포크댄스, 촛불의식, 캠프파이어 등

○ 야외활동

사이클링, 등산, 하이킹, 취사활동 등

이상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행해졌음을 당시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고교생의 이용에 관해서는 어떤 고등학교의 기록을 보면 스포츠에 있어서 한 학년 전원이 동시에 연수할 수 있는 점이 학교와는 다르다고 되어 있다.

청년단체의 연수내용은 거의 동일하여, 친목을 다지는 레크리에이션, 버스투어의 관광지 탐방, 지방청년단과의 좌담회, 동시에 연수중인 다른 단체와의 교류회 등이 행해졌다. 연수내용에 야외활동을 편입시킨 것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활동으로서 대단히 증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 1967년에 그 의의와 구체적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이용안내」에 게재되었다.

○ 야외활동의 구체적인 예로서 하이킹에 관해서는 御胎内식물원, 太郎坊, 野鳥園(현재 폐원) 등이 소개되었고, 1970년에는 風穴, 東山湖, 東富士담 등이 추가되었고 그 거리와 소요시간도 기재되었다. 아울러 버스를 이용한 코스와 사이클링 코스, 캠프, 스키, 스케이트, 후지산 등산 등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1965년 이후에는 학교교육에서 교육기재를 이용한 집단지도의 개별화가 추구되어 국립중앙청년의 지도 단순한 분필과 흑관만을 이용한 지도와 강의, 토의식의 연수방법만이 아니라 시청각기재를 이용한 연수방법이 다양하게 도입되었다.

근년에는 연수단체는 물론 연수내용,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어 연수실을 특징있게 개조하여 회화, 음악, 수공예 등 각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바닥에 카펫트를 깔고 책상의 배치를 바꾸는 등 보다 훌륭한 분위기를 내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연수를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국립중앙청년의 집에서는 1965년경부터 많은 회화와 판넬의 도입에 힘써서 연수동과 숙박실에 장식하여 정서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야외활동의 종목에서 새로운 것으로서 오리엔티어링과 walk rally를 들 수 있다.

오리엔티어링은 1897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되어 일본도 1969년 12월에 IOF에 가맹했다. 당초는 건강한 체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보급되었지만, 청년의 집에서는 소집단활동의 장으로서의 그 효과가 크고 목적달성, 동료와의 연대감의 고양에 적합한 그룹활동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국립중앙청년의 집에서는 1970년 6월의 주최사업 “청소년관계시설직원연수”에서 처음 도입, 하루만에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그 공적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본 청년의 집에서는 포인트 오리엔티어링만을 실시하여 처음에는 이동식 포스트에서 스타트했지만, 1981년에 고정 포스트가 설치되어 40포스트의 스코어 오리엔티어링이 가능하게 되어 야외활동의 중요한 종목이 되었다.

한편, walk rally는 오리엔티어링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서 급속하게 프로그램 속에 도입되었다.

이 경기는 당시 전문직원이었던 渡邊佳洋씨가 과거 靜岡현 청년의 집 근무시기에 night walk rally로서 고안한 것인데, 이곳의 환경은 자위대, 미군 기지 등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새롭게 연구한 결과 주간에 실시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실시했다. 최초의 실시는 1979년 2월의 주최사업 “청년의 집

등 직원연수”로서 이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 걸쳐 확산되어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광역적인 연수효과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는 연수단체의 8할이 오리엔티어링 또는 walk rally 중 하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양자 모두 반나절 코스, 하루 코스를 다양하게 편성하여 프로그램화했다.

캠프에 관해서는 1983년부터 鏡原캠프장에 10인용의 상설텐트를 20개, 6인용 등 텐트를 10개 세트로 하여 이용객을 받고 있다. 太郎坊캠프장은 이용자가 텐트 등을 지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은 거의 보이 스카우트 등 어느 정도 캠프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정되어 있다.

무도에 관해서는 1973년에 유·검도 도장이 건설되고 또한 1984년에는 국립중앙청년의 집 개소 25주년 기념으로 직원들의 손에 의해 궁도장이 완성되어 종합적인 무도의 연수종목이 정비되었다.

야외취사 등의 야외활동에 관해서는 1987년도에 야외취사동(300인 수용)이 건설되었고, 1988년에는 야외활동의 센터로서의 야외활동동, 이른바 로고 하우스가 건설됨으로써 야외활동의 거점이 되었다.

종래에는 캠프기간중의 야외취사가 충분하게 전개될 수 없었지만 야외활동동의 일련의 정비가 행해짐으로써 캠프 300인, 야외취사 300인의 활동이 동시에 실시될 수 있게 되어 야외활동의 3대 프로그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해 왔다.

반면, 미군시대부터 계속 사용해 온 풀은 하기연수의 프로그램으로서 중요시되었지만 1977년에 폐지되었다. 이것은 국립중앙청년의 집이 해발 700미터에 있어서 수영할 수 있는 기간이 대단히 짧고 물이 여름에는 데말라서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시설이 노후화하는 등의 이유때문이었다.

그외에 자연의 녹음속에서의 대화나 그룹 토의 등을 위해 녹음집회장이 대화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스포츠면에서는 율동적인 운동활동의 방법으로서 재즈 댄스 및 레크리에이션 댄스 등 현대적인 것을 도입하는 단체가 있는 동시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기를 관조하는 연수로서 좌선 및 예법을 도입하는 단체도 증가하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현상으로서, 여기서도 動과 靜이 조화를 이룬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1984년부터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주취사업중 교류사업에서는 외국인을 주된 연수대상으로 삼는 한편, 폭넓은 시야에서 국제교류실을 설치하였다. 세계로 눈을 향하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전시물에 대한 연구와 외국인

에게 청년의 집을 소개하기 위해 영문설명 및 팜플렛 등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연수지도상에 있어서 사전협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용단체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킴과 더불어 연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198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사전지도를 충실히 하기 위해 연수담당자를 위한 「지침」도 정비하고 있다.

2. 생활지도

(1) 생활지도의 목표

청년의 집의 기본적인 성격은 집단숙박생활을 통해서 청소년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생활지도를 기반으로 한 교육에 있다.

생활지도의 목표는 청년이 침식을 같이 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바람직한 생활태도의 확립, 사회성의 함양, 사회적 자기실현을 위한 동기설정, 나아가서는 삶을 위한 의욕을 북돋우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규율(자율·타율)있는 생활” “자연과의 접촉을 기조로 한 생활” “벗과의 만남을 기조로 한 생활”등을 체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그대로 시행해 왔다.

창설기의 생활지도는 생활훈련이 주였는데, 기본적 생활습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공동숙박생활을 통한 교육지도 전체를 생활지도의 대상으로 삼아, “예절바른 생활” “시간을 지키자” “규칙을 지키자” “타인을 배려하자”등의 표어에서 나타나듯이 생활규율의 엄수에 역점을 두어 “규율 있는 집단생활을 하는 청년”의 육성에 노력했다.

1972년의 「청년의 집의 이용규칙」의 주된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 (1) 연수생은 원칙적으로 9시부터 15시사이에 입·퇴소할 것.
- (2) 입소할 때 이용의 지침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만 한다.
- (3) 정해진 생활시간에 따라 생활해야만 한다.
- (4) 생활시간에 정해진 아침·저녁의 모임에서 연수생은 국기 및 所旗의 게양 또는 하강을 행해야만 한다.
- (5) 연수생은 숙박실, 연수실의 청소 및 정리·정돈에 노력해야 한다.
- (6) 연수생은 주류를 마셔서는 안된다.

등이다. 또한 청년이 집의 직원은 강의, 토의, 체육, 테크리에이션, 야외활동 및 규율있는 공동생활 등에 관해서 지도 및 조언을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생활지도의 내용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 ① 생활규율을 정해서 규율 있는 생활을 시킬 것.
- ② 생활을 통해서 자주적·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할 것.
- ③ 봉사활동을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킬 것.
- ④ 생활시간을 인식시켜서 5분전 행동을 실천케 할 것.
- ⑤ 누구와도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하는 습관을 기르게 할 것.
- ⑥ 항상 집단 속의 개인으로서 행동하도록 유념시킬 것.
- ⑦ 자유시간 중에 가능한 한 여러사람과 접촉하는 기회를 체험케 할 것.
- ⑧ 집단생활 속에서 협력해서 행동하게 할 것.
- ⑨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호연지기를 배양하도록 할 것.
- ⑩ 퇴소시에는 다음에 올 사람을 배려하여 정리·정돈하게 할 것.

등의 10항목으로서, 그중에서도 ①규율을 지키도록 할 것 ②봉사의 정신을 익히게 할 것 ③연대의식을 고양시킬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연수생측으로부터의 청년의 집에 대한 요망으로서는 ①자기계발 활동 ②우애심의 육성 ③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의 심화 등이 있었다.

(3) 생활지도의 방법

생활지도의 방법에는 직접지도와 간접지도가 있는데 본 청년의 집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지도해 왔다.

가. 직접지도

① 오리엔테이션:

입소시에 생활규칙, 생활의 방식에 관해서 이해시키고 연수에 대한 의욕을 환기시킨다.

② 아침·저녁의 회합:

의식을 통해서 생활의 흐름에 매듭을 짓고 교류를 도모한다.

나. 간접지도

① 단체책임자를 통해서 행하는 지도:

사전협의, 대표자회의, 숙사순시 등

② 연수생을 통해서 행하는 지도:

생활위원회의, 숙사순시, 생활에 관한 양케이트 기입, 퇴소시에 있어서의 퇴소확인 등.

(4) 생활지도의 영역

생활지도는 소내의 생활 전체에 걸쳐서 행해지는 것인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특색있게 진행해 왔다.

가. 오리엔테이션

직원과 연수생의 최초의 접촉으로서 “청년의 집의 얼굴”이라고 지칭될 만큼 중요시되면서 실시해 왔다. 단지 규율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긴장감과 불안울 해소시킴과 동시에 청년의 집의 생활면, 학습면에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실시되어 왔다.

1967년에 내용·방법의 전개에 있어서 직원들 사이에서

단체숙박훈련의 성과의 여하는 우선 입소시에 있어서의 오리엔테이션의 내용·방법 등에 의해 그 대부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생활지도를 지향하는 청년의 집에 있어서는 오리엔테이션에서의 생활의 동기부여와 단체활동 등을 통한 연수자의 생활체현의 양자를 통해서 생활지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고 합의되어 오리엔테이션을 생활지도의 중요한 기동으로 간주했다.

그뒤 내용·방법에 있어서 연구가 진행되어 시청각 기재(슬라이드, OHP)를 활용하거나 영화·VTR로 된 「청년의 집의 생활」을 이용한 사전지도를 행하여 입소시의 오리엔테이션을 자주운영하도록 했다.

1988년부터는 청년의 집의 이용경험이 풍부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청년의 집의 숙박연수의 의의를 파악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청년의 집의 직원이 오리엔테이션을 행하지 않고 입소식에서 환영인사 정도만 하여 자주 오리엔테이션에 의해 연수활동에 들어가도록 했다.

또한 1984년에는 개소 이래 설치되어 있던 오리엔테이션실을 폐지했다.

나. 아침·저녁의 회합

하루연수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집단생활에 있어서의 다른 단체와의 일체감을 의식시키고 타단체와의 교류와 연대감을 심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어 왔다.

1967년에는 종래 시행되어 오던 내용을 검토하여 보다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시방법을 명문화하였다. 회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국기의 게양·하강, 국가연주는 국민의식을 높이고 민족애, 향토애를 배양한다.
- (2) 연수생 전원이 동료(공동생활체)로서의 연대감을 공유하는 장이다.
- (3) 하루생활에 매듭을 짓는다.

1972년부터 저녁회합 속에 교류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 이전에는 회합에 앞서 전문직원이 지도하여 행했는데 연수생의 참가는 자유였다.

1984년부터는 아침회합을, 1985년부터는 저녁회합을 연수생의 사회로 진행하고 직원이 지도조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989년부터 아침회합은 당직직원, 저녁회합은 전문직원이 지도조언하고 회합의 도입부분이 끝난 뒤에 연수생이 사회·진행하기 시작했다.

다. 연수시간 및 자유시간

연수시간에 있어서의 생활지도는 단체대표자와 그 연수 지도강사와의 협력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청년의 집에서는 “5분전 행동”의 철저와 정리·정돈의 습관, 교재교구의 대출 및 기구의 취급을 지도함과 아울러 연수생에 대한 연수계 등의 역할을 명시하여 지도하고 있다.

자유시간의 생활지도는 연수생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서, 연수의 피로를 풀고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한 연구가 개소 이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스포츠 용구의 충실, 식당, 로비에 TV 설치 및 신문, 잡지, 각종 사진, 팝플렛류, 악기류의 개방(이전에는 연수시간에만 대출되었다)등을 행하여 효과를 높여 왔다. 1988년부터는 각 숙사 로비에 청량음료수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부 숙사에 카드식 공중전화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집단생활속에서 개인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어서 그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라. 식 사

동일 메뉴의 식사를 함으로써 동료와의 일체감을 배양하는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79년부터 “식권제”를 폐지했다. 당초는 식권을 창구에 제출하고 식반을 받아야 했던 것이 자유롭게 되었던 것이다. 이 방법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연수생의 요구와 다른 국립청년의 집에서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당소에서도 실시하게 되었다.

1988년부터 겨울철 이용축진의 일환으로 가족동반을 적극적으로 권하여 “따뜻한 식사”를 모토로 식사제도를 개선하고 월1회의 식당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왔다.

또한 테이블 매너의 연수에서 알콜류는 금지하다가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와인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마. 숙사에 있어서의 생활과 퇴소확인

숙사에 있어서의 생활지도는 오리엔테이션과 생활위원회의 지도를 통해서 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쓰레기의 처리, 시트 등의 수령과 반납, 기상·소등, 생활환경의 유지,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

퇴소확인에 관해서는 시설·설비의 안전점검을 겸해서 쾌적한 집단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뒤에 올 사람이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개소 당시부터, 1965년까지 숙소점검은 서무계가 해왔지만 1966년부터는 사업과로 이관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시기에 퇴소점검이 중지되었던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숙사의 내부정리·정돈상태가 나빠지고, 입소단체의 입소시의 감상이 좋지 않았으며 다음 단체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어 이용자의 자부심, 자발성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1981년부터 재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퇴소확인에는 각 숙소마다의 생활위원 및 실장과 각 숙소담당의 전문직원이 임석하고 있다. 확인시간은 직원조례후의 8시 45분부터 실시하고 있다. 불량한 설비들은 다음 단체가 입소하기 전에 곧 수리, 손질 등을 하고 있다.

바. 생활위원회

「연수의 안내」에 따르면, 1967년부터 저녁회합이 종료된 뒤에 연수단체의

책임자와 회의를 갖고 있다.

1972년부터 연수단체 대표자회의와 생활위원회로 나누어 실시해 왔다. 생활위원회의의 위원은 단체의 경우 숙사별로 남녀 각 1명을 선출하여 생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생활위원의 담당내용은, ①생활일지의 기입 ②숙사, 연수실 등의 청소 및 정돈 ③연수생의 건강관리 ④식사, 입욕시간의 연락 ⑤시트 등의 수령, 반납 ⑥퇴소시 점검표의 기입 등이다.

생활위원회는 매일 저녁회합 종료후 15분정도트 오리엔테이션실에서 행해 오다가 1978년부터 생활위원회의를 저녁회합 전에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그 이유로서는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이 일반연수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저녁회합 전에 전원에게 생활위원이 보고하도록 하여 회의의 내용을 철저하게 주지시키고 있다.

사. 건강·안전

청년의 집에 있어서의 생활지도는 단순히 규칙과 모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속에서의 생활이 중요시되어 왔다. 연수생의 건강, 안전의 면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실시해 왔다.

(1) 건강 관리

안전한 시설·설비의 관리와 연수생 자신의 자주적인 건강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연수생에 대해서는 사전지도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 의외와 의식 강화를 도모해 왔다.

(2) 사고방지

시설·설비의 안전대책에 관해서는 매일 숙사의 순회, 월 2회의 연수회장의 순회, 점검정비에 노력해왔다.

1977년에 폐지된 풀에 관해서는 사고방지대책으로서 「풀 이용수칙」에 의거하여 상시 직원을 특별히 배치해서 관리해 왔다. 야외활동에 있어서의 사고대책으로서는 무선기의 도입과 우선시 연수의 경우 입욕시간의 배려, 장기간의 연수생에 대해서는 세탁실의 은풍에 의한 건조장의 정비 등으로 안전대책을 도모해 왔다.

재해대책으로서는 시설·설비, 교재·교구의 점검, 비상재해 발생시의 대응에 관한 직원훈련의 실시와 동시에 연수생에게도 협력을 구하고 있다.

(3) 연수생의 傷病

당소를 이용하고 있는 단체는 저마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안전을 기하면서 연수활동을 실시하여, 사고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요청되고 있다. 이것은

연수의 직접적인 목적수행 이외에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소에 있어서의 연수생의 傷病상황을 보면 연간 연속박자수 약 11만인에 대해서 의무실 이용자는 730명으로 전체의 1%미만이다.

1988년 생 활 시 간

표준시간대 3월 제3 월요일의 다음날 부터 10월 제3 월요일까지		겨울시간대 10월 제3 월요일의 다음날 부터 3월 제3 월요일까지	
6:00	기	상	6:30
6:00-6:40	침 구 정 리	, 세 면 등	6:30-7:10
6:40-6:55	아 침	회 함	7:10-7:25
7:00-7:30	청	소	7:30-8:00
7:30-9:00	조 식	, 자 유	8:00-9:00
9:00-12:00	연	수	9:00-12:00
12:00-13:00	점 심	, 자 유	12:00-13:00
13:30-16:30	연	수	13:30-16:30
16:30-16:50	청	소	16:00-16:20
16:40-16:55	생활위원회	, 연수담당자회의	16:10-16:25
17:00-17:30	저 녀	회 함	16:30-17:00
17:30-19:00	석 식	, 입 욕 , 자 유	17:00-18:30
19:00-20:30	교 류	, 연 수	18:30-20:30
20:00-22:00	입 욕	, 자 유	20:00-22:00
22:00-22:30	취 침	준 비	22:00-22:30
22:30	소 등	, 취 침	22:30

V. 이용통계

당 청년의 집은 개소 이래 1989년 3월 31일까지의 30년간 20,261단체, 실 인원 1,374,494명, 연숙박자 3,204,641명의 청년이 당소를 방문하여 규율있는 생활과 활동을 체험했다. 연 숙박자수는 개소후 10년째인 1969년 8월에 100만명, 그 8년후인 1977년 11월에 200만명, 다시 10년뒤인 1987년 4월에 300만명에 달하였다.

개소이후의 10년간은 이용자가 증가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그 뒤의 10년간은 연간 10만명부터 13만명 사이를 왕복했다. 9만명대로 감소했던 해(1982, 1983년)도 있었지만 서서히 증가하여 근년에는 연평균 11만명대를 회복했다.

단체수도 1966년에 30년간 최고인 955개를 헤아렸지만 1979년 이후에는 감소의 경향에 있으며 특히 근년에는 연간 평균 400단체에 이르고 있다. 단체수가 감소해도 연숙박자수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한 단체당 인원수가 크게 늘어났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대상별 구성비를 보면 개소부터 1974년까지의 15년간은 근로학생이 점하는 비율이 높고 학생은 낮았다. 그러나 1975년도 이후에는 진학율의 증가와 고등학생의 숙박연수의 증가에 수반하여 학생의 이용이 높아져서 구성비에서 역전현상이 일어나 근로청소년이 점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이용단체의 숙박일수를 보면 해마다 2박 3일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체의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지방별 이용상황은 개소부터 5년간은 전국에서 유일한 국립 청년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전국에 걸쳐 있었다. 그러나 1963년에九州 阿蘇에 국립청년의 집이 개소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되어 각 청년의 집이 주된 대상지구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년에 당소를 이용하는 주된 현은 關東 甲信越靜地區로 좁혀지고 있다.

30년간의 이용통계에서 반드시 지적해 둘 사항은 근년에 외국청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개소한 직후에도 외국인의 이용(시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특히 두드러져서 국제화의 경향이 당소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주최사업은 물론 연수지도사업의 단체중에도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청

년의 마을, 21세기를 위한 우정계획, 일본 C.I.S.V-국제 어린이 마을-등이 당소에서 개최되었다.

〈표 5-1〉

연수자·단체의 추이

(단위: 명,%)

	1959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8
○연수자의 추이								
-실연수자수	12,663	36,737	49,076	48,401	44,936	47,225	48,332	40,454
-연속박자수	14,862	68,284	115,841	121,789	105,491	112,301	113,119	103,292
-연연수자수	27,525	105,021	164,917	170,190	150,427	159,526	161,441	143,746
○이용단체수	257	761	886	808	772	566	493	414
○대상별 구성비								
-근로청년	56.8	44.8	64.8	69.0	38.6	28.7	19.5	20.6
-학 생	11.9	26.2	17.4	16.7	41.6	54.0	67.2	65.9
-지 도 자	22.6	10.3	14.1	6.5	13.9	17.3	8.0	10.6
-기 타	8.7	18.7	3.7	7.8	5.9	-	5.3	2.8

〈표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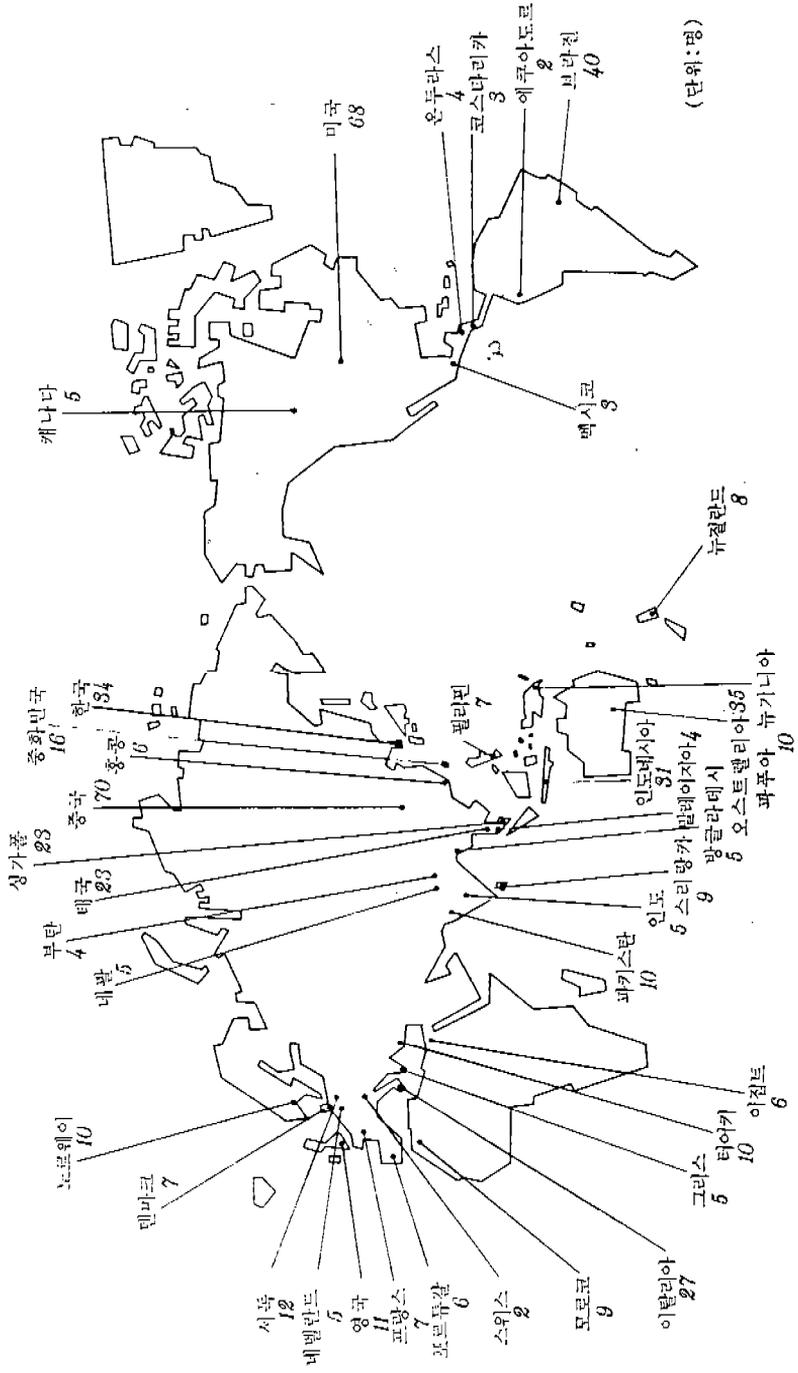
지역별 이용자수의 변화

(단위: 명)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北海道	12	48	25	0	6	26	35	22	83	57
青 森	352	11	0	15	0	0	0	0	0	0
岩 手	0	0	0	0	57	0	0	0	0	0
宮 城	25	64	130	61	43	20	20	24	0	8
秋 田	0	10	0	0	0	0	0	0	0	10
山 形	46	0	22	0	28	24	0	0	0	0
福 島	80	128	125	54	23	57	104	62	64	42
茨 城	374	362	371	223	91	60	399	453	798	481
板 木	0	19	0	0	58	9	0	0	10	0
群 馬	28	0	40	0	101	0	45	0	7	0
埼 玉	634	841	1,170	811	907	1,074	1,336	338	122	260
千 葉	921	1,579	620	670	897	1,724	1,892	2,292	2,758	1,316
東 京	12,357	14,183	15,785	13,883	15,730	16,147	16,071	14,729	15,420	14,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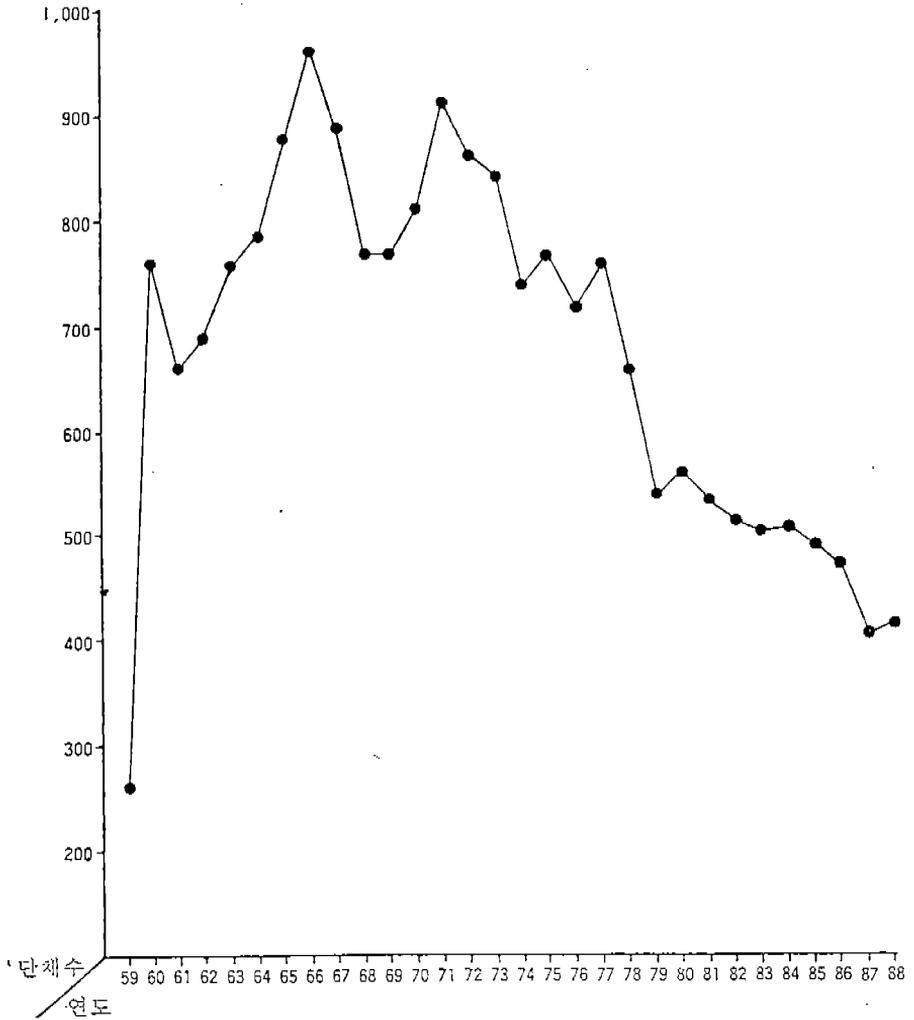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新 奈 川	4,469	5,534	5,123	5,450	6,075	8,366	7,789	7,726	4,812	4,548
新 潟	63	119	100	281	46	331	367	433	0	25
富 山	111	221	164	253	159	133	86	86	61	34
石 川	42	49	40	71	0	41	67	23	12	0
福 井	59	11	11	21	10	8	9	8	9	6
山 梨	144	275	55	17	74	798	878	2,289	1,901	989
長 野	22	0	32	0	11	0	24	8	0	0
岐 阜	1,086	1,250	804	1,249	1,034	285	687	11,865	637	680
靜 岡	15,324	14,195	11,591	9,936	8,760	11,878	10,887	5,685	11,104	10,516
愛 知	4,554	3,560	4,012	4,457	3,857	3,662	5,349	0	6,041	5,679
三 重	66	61	66	0	0	0	0	27	70	118
滋 賀	15	92	42	155	17	109	43		0	72
京 都	8	0	206	0	0	0	0	77	131	0
大 阪	482	1,276	817	776	165	386	600	240	161	189
兵 庫	475	104	250	51	29	0	48	35	0	0
奈 良	328	423	656	733	258	204	206	210	162	0
和 歌 山	67	68	27	76	36	63	82	33	36	45
鳥 取	0	20	30	0	11	18	0	0	0	0
島 根	53	0	0	0	23	0	0	0	0	0
岡 山	70	0	43	14	9	0	0	0	0	0
廣 島	0	61	0	10	0	0	0	0	0	0
山 口	0	0	0	0	0	0	0	0	0	0
德 島	0	27	46	0	0	0	0	0	0	0
香 川	22	17	0	10	0	7	0	9	0	0
愛 媛	32	0	0	30	0	0	0	0	0	0
高 知	0	0	0	0	0	0	0	0	0	0
福 岡	0	113	112	99	110	89	566	545	92	168
佐 賀	0	0	0	0	0	0	0	0	0	0
長 崎	0	211	0	0	0	0	0	0	0	0
熊 本	0	0	303	0	0	0	0	0	0	0
大 分	107	295	293	231	261	296	0	261	0	0
宮 崎	0	0	0	0	0	0	0	0	0	0
鹿 兒 島	0	0	12	12	0	9	0	0	0	0
沖 繩	0	0	0	0	0	0	35	0	0	0
외 국	13	18	0	36	0	0	167	110	131	195
블 립	25	751	39	684	638	266	0	71	292	74
전 국	3,540	1,229	255	1,050	309	1,428	530	475	466	463
계	46,006	47,225	43,417	41,419	39,833	47,478	48,322	48,922	45,380	40,454

〈그림 5-1〉 외국인 국별 이용상황(1988년도)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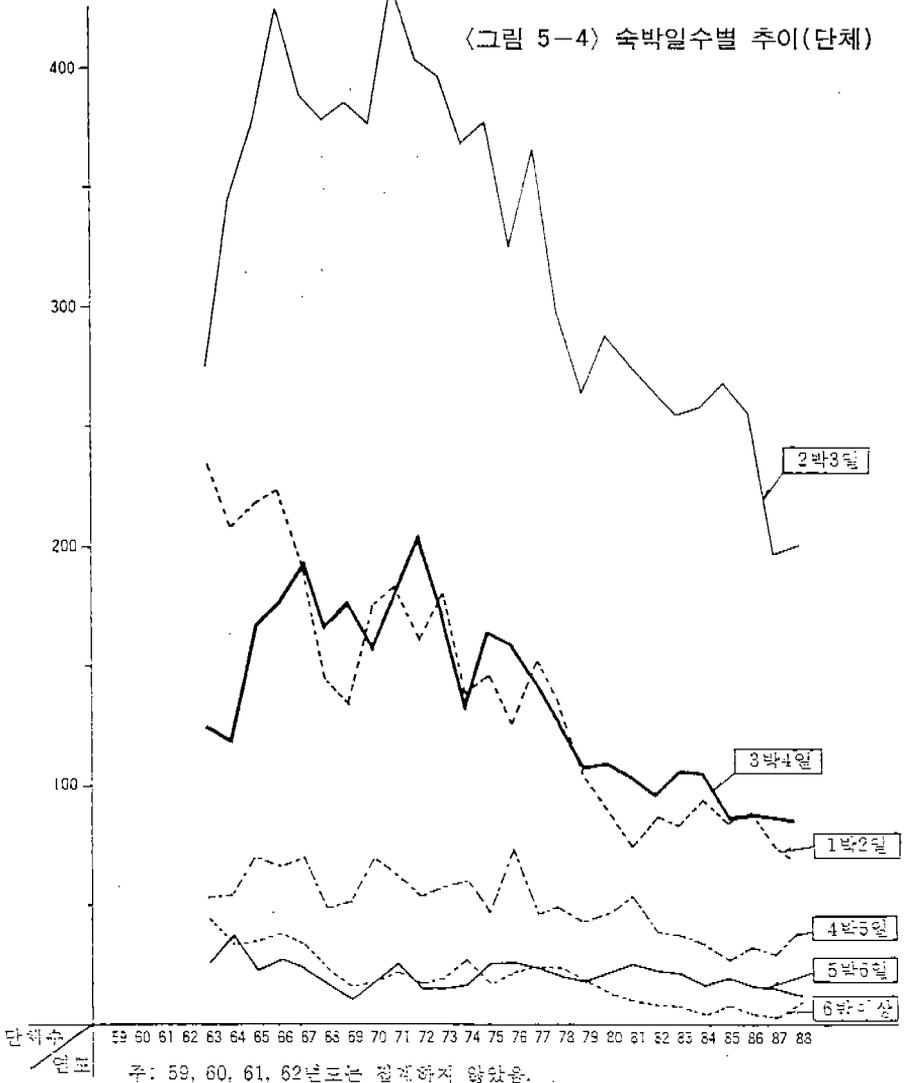
〈그림 5-2〉 단체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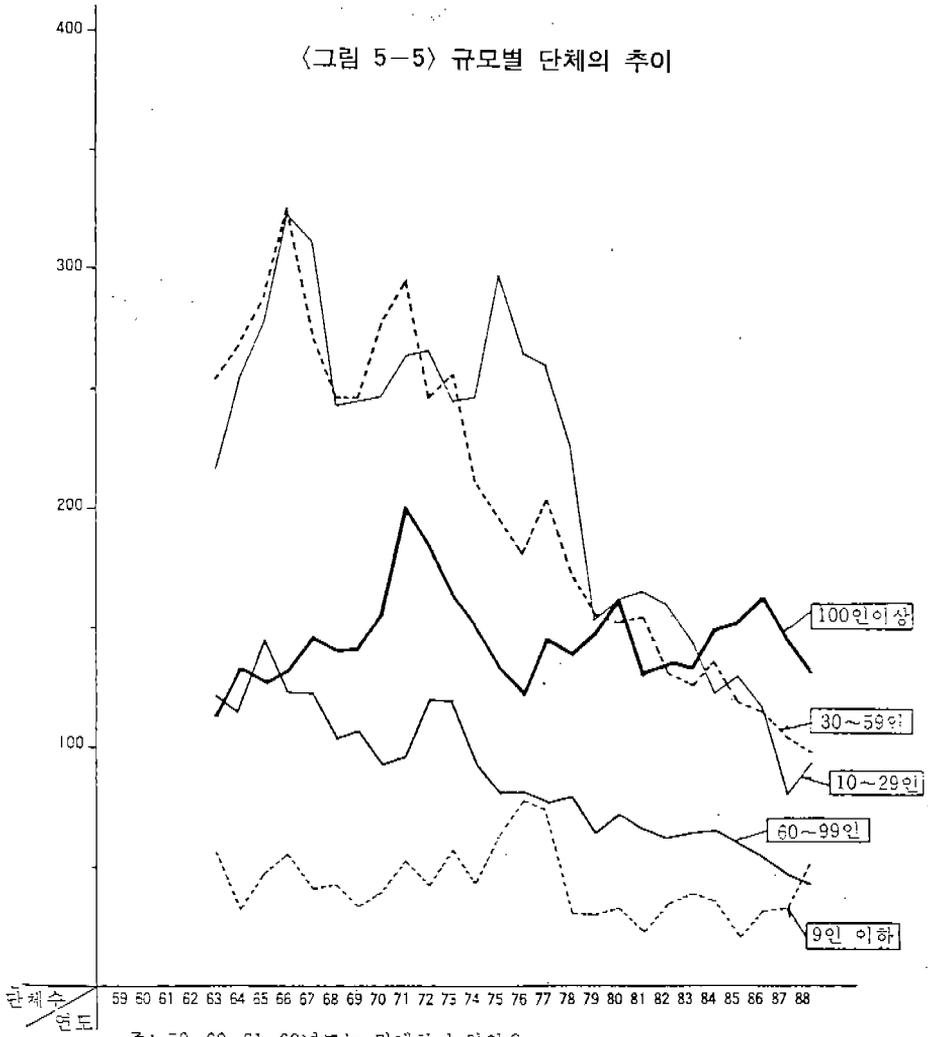
(그림 5-3) 대상별 구성비의 추이

	근로청년	학생	지도자	기타
59		11.9	22.6	8.7
60		76.2	10.3	18.7
61		22.7	13.1	12.8
62		74.1	12.6	8.6
63		27.3	10.4	2.7
64		25.5	8.5	4.9
65		17.4	14.1	3.7
66		21.9	12.5	3.6
67		26.7	9.4	5.4
68		26.2	12.2	
69		20.5	10.0	
70		16.7	6.5	7.8
71		23.2	6.9	3.1
72		30.1	10.0	9.1
73		32.8	15.6	0.03
74		36.1	7.4	
75		41.6	13.9	5.9
76		44.3	12.9	4.8
77		48.2	9.4	6.9
78		50.5	10.7	5.8
79		53.1	19.6	0.8
80		54.0	17.3	
81		52.2	17.1	
82		52.5	12.6	6.7
83		58.0	11.6	5.8
84		62.6	9.4	7.0
85		67.2	8.0	5.3
86		67.9	8.8	4.7
87		67.7	9.6	3.7
88		65.9	10.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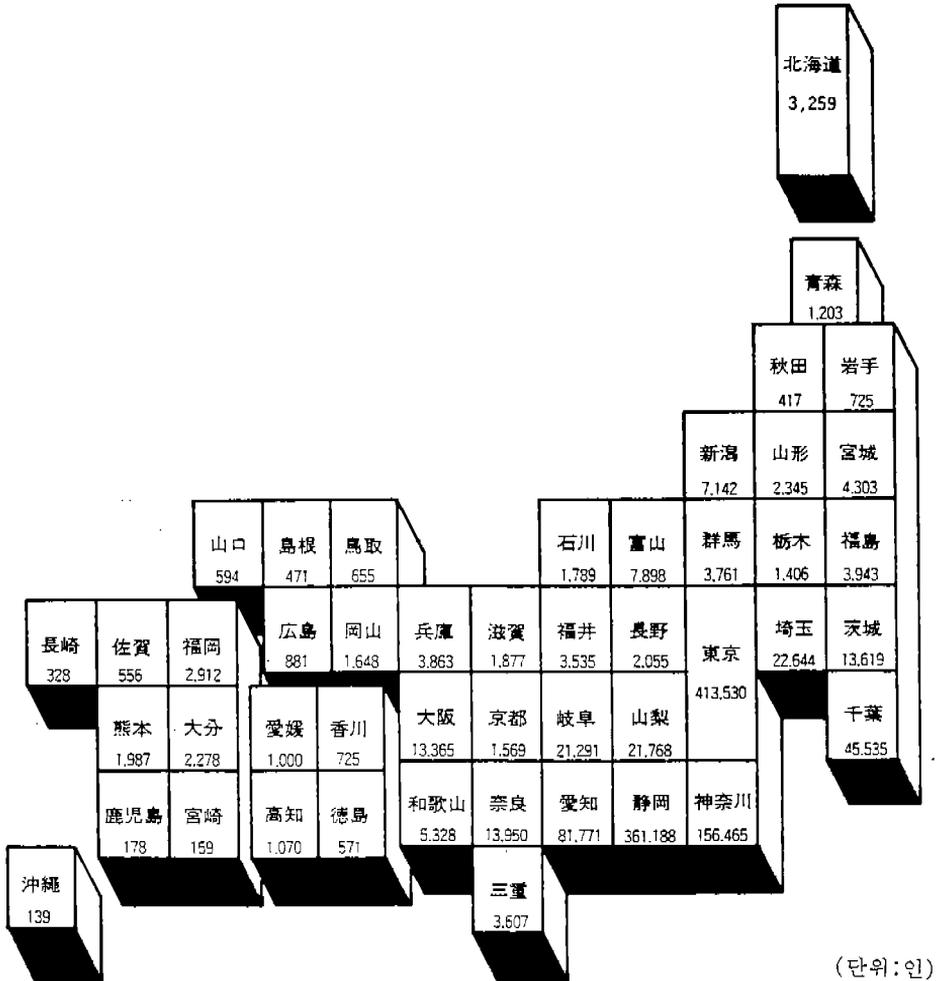
〈그림 5-4〉 숙박일수별 추이(단체)



〈그림 5-5〉 규모별 단체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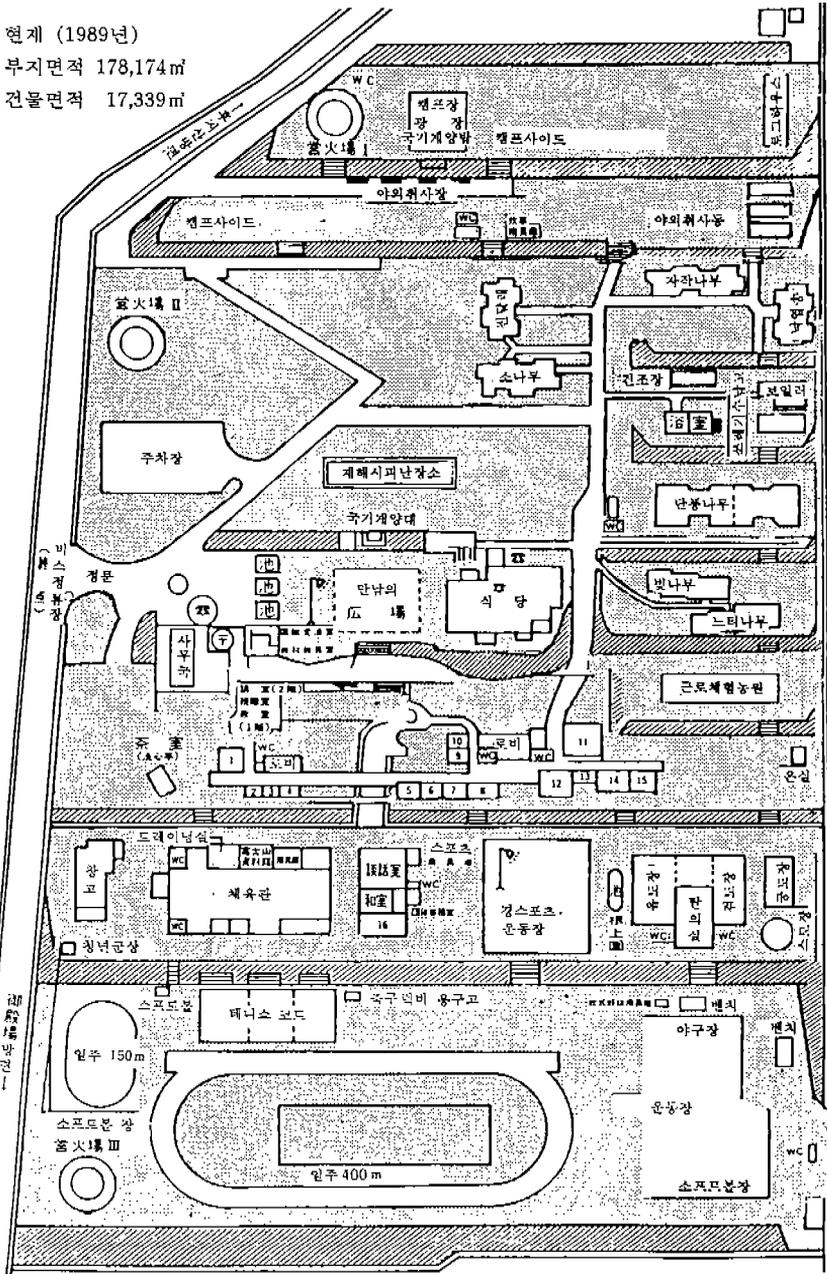
〈그림 5-6〉 都道府縣別 이용상황 (1959~88년간의 실연수자수의 합계)



(단위:인)

VI. 시설 및 설비

현재 (1989년)
 부지면적 178,174㎡
 건물면적 17,339㎡



<표6-1>

주된 연수시설·설비 등의 일람

		시 설 명	정 원	실 수	部 室 的 內 訳 等			시 설 명	정 원	수
숙박	숙박	소나무	66	7	12명(3실), 10명(2실), 8명(1실), 2명(책임자실1실)	연	연	국제교류실	40	1
		진달래	66	7	12명(3실), 10명(2실), 8명(1실), 2명(책임자실1실)			강당	604	1
		자작나무	67	8	12명(2실), 11명(1실), 10명(1실), 8명(1실), 2명(책임자실2실)			시청각실	144	1
		낙엽송	67	8	12명(2실), 11명(1실), 10명(2실), 2명(책임자실2실)			소년수실	30	5
		단풍나무	172	18	12명(6실), 10명(8실), 8명(2실), 2명(책임자실2실)			중연수실	60	2
		동벚꽃	62	11	6명(10실), 2명(책임자실1실)			수공예실	50	2
시	시	느티나무	50	9	7명(1실), 6명(6실), 5명(1실), 2명(책임자실1실)	수	수	레크리에이션실	210	1
			550	68				음악실	60	1
시설	시설	鏡原 (所內)	250	초급 캠프 (7월~9월)		수	수	미술실	50	1
		太郎坊 (所外)	150	중·상급캠프 (7월~9월상순)				담화실	60	1
시설	시설	취사장				수	수	대연수실	120	1
								대연수실	150	1
시설	시설					수	수	대로비	50	1
								소로비	20	1
시설	시설					수	수	洗心亭	1708	22
								체육관		
시설	시설					수	수	체육도장		
								공도장		
시설	시설					수	수	스그라운드		
								서브그라운드		
시설	시설					수	수	스포츠장		
								스모장		
시설	시설					수	수	테니스코트		
								스포츠그라운드		
시설	시설					수	수	만남의광장		
								근로체험농원		
시설	시설					수	수	營火場 I·II·III		
								야외취사동		
시설	시설					수	수	야외취사장		

시설의 내용		야외활동의 거점	생활관련시설	명칭	
야외활동동	혼와실 和室 給湯				

VII. 기구 및 정원

국립중앙청년의 집은 문부성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31국회에서 1959년 4월 14일에 성립, 당일 공포되어 제도적으로는 그날 설치되었다.

이와 아울러 그날로 문부성조직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政令과 무부성설치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省令도 공포되고 福田 사회교육국장이 소장으로 겸임발령되었다. 또한 내부조직과 그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소장의 직무권한, 서무과, 사업과의 편성, 소장에 대한 조언기관으로서의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규정되었다.

그러나 국립중앙청년의 집 설치에 수반하는 문부성 설치법의 일부개정과 병행하여 성립되어야 할 행정기관 직원정원법의 개정은 제31국회에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부성에서는 곧 잠정조치로서 성내의 정원을 조정하여 4명을 배정하고 6월 1일 石川 서무과장을 우선 발령하여 창설사무를 담당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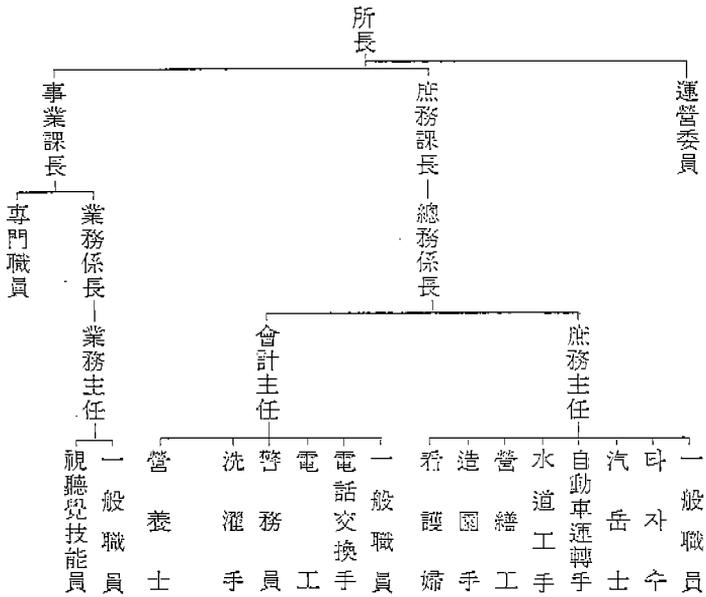
정원법의 개정은 1959년 7월 9일 성립, 당소의 정원 20명이 확정되어 8월 1일에는 專任소장으로서 西田泰介가, 8월 16일에는 池田 사업과장이 각각 발령되고 다른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채용되었다.

내부조직은 소장 아래 서무과, 사업과의 2과가 설치되어 서무과에는 총무계, 사업과에는 업무계와 전문직원의 조직으로 발족했지만, 1963년부터 1966년에 걸쳐서 서무과 총무계를 폐지하여 서무계와 회계계로, 또한 사업과에는 새로 지도계를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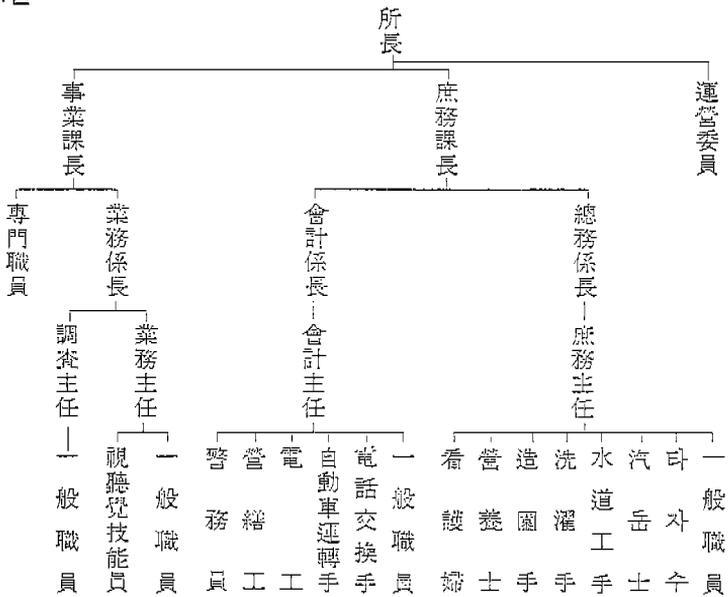
또한 1974년 4월부터 전문직원 중의 한명을 주임전문직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현재의 조직에 이르렀다.

정원에 관해서는 개소시 20명이었던 것이 시설의 충실과 사업의 확충에 수반하여 개소 5년째에 해당하는 1964년도에는 66명이 되었다. 그러나 1966년도 이래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정원삭감계획에 의거한 삭감과 현업직원의 결손 불보충조치에 의한 감원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여 1989년 현재 29명에 머물고 있다. 감원된 직종은 노무관계부문으로서 이 부문의 업무처리는 업무의 합리화와 외부취탁 등을 통해서 대처하고 있지만, 교육시설로서의 연수환경의 유지, 보전에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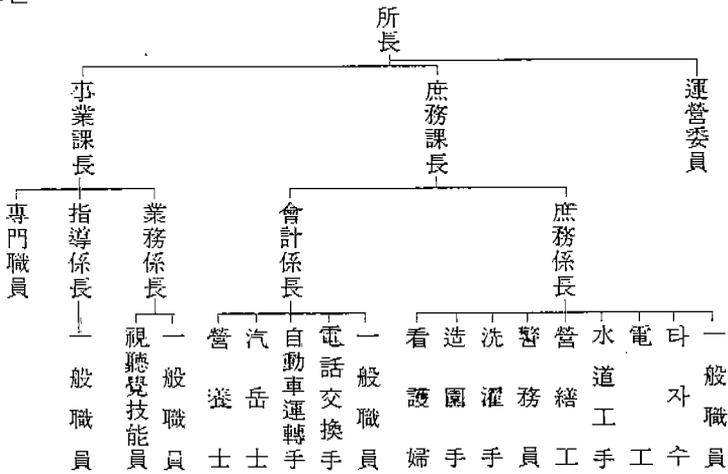
개소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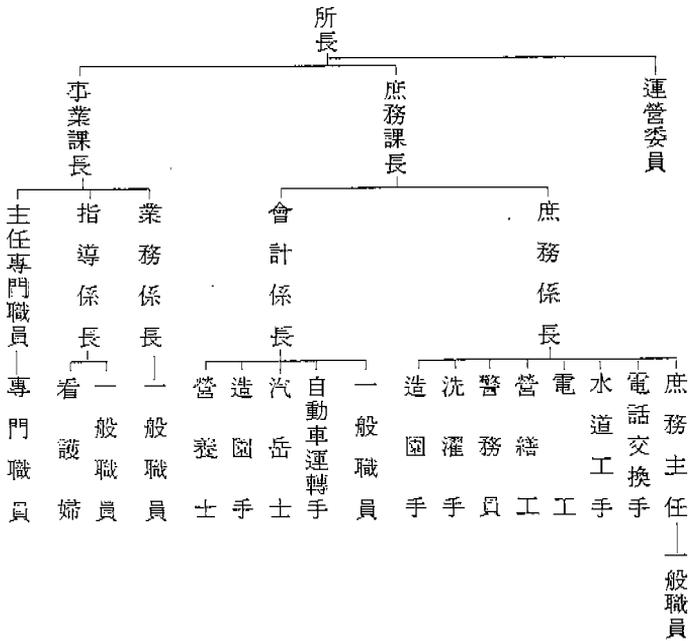
196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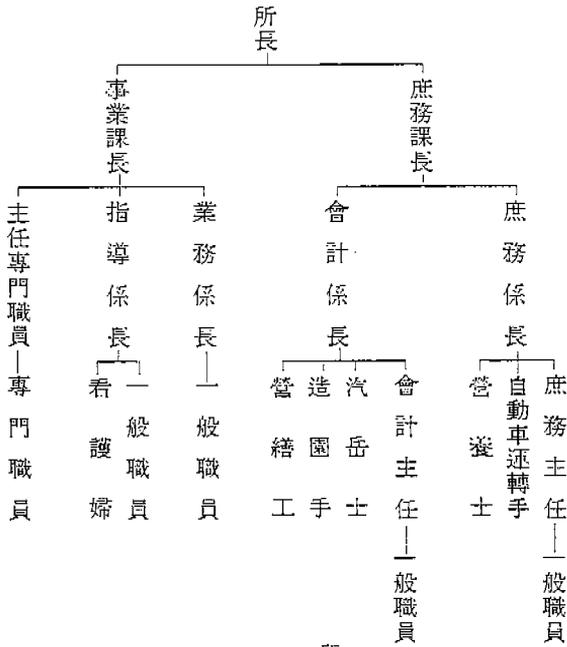
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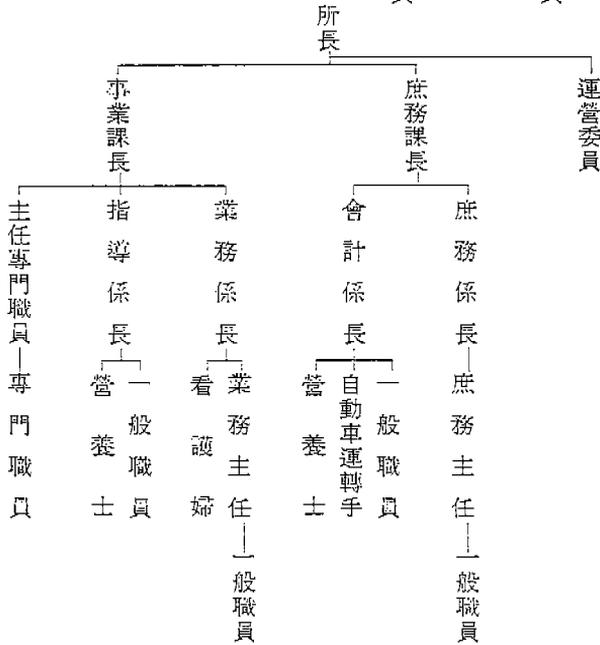
1975년



1985년



1989년



〈표7-1〉 정원의 추이

(단위 : 명)

		行政職 (-)						計
		所長	課長	係長	專門職員	主任	一般職員	
定員	1959	1	2	2	2		5	12
	60	1	2	2	2		5	12
	61	1	2	2	2		13	20
	62	1	2	2	2		15	22
	63	1	2	3	2		14	22
	64	1	2	4	4		13	24
	65	1	2	4	4		13	24
	66	1	2	4	4		13	24
	67	1	2	4	4		13	24
	68	1	2	4	4		13	24
	69	1	2	4	4		13	24
	70	1	2	4	4		13	24
	71	1	2	4	4		13	24
	72	1	2	4	4		13	24
	73	1	2	4	5	1	12	25
	74	1	2	4	5	1	12	25
	75	1	2	4	5	1	12	25
	76	1	2	4	5	1	11	24
	77	1	2	4	5	1	11	24
	78	1	2	4	5	1	11	24
	79	1	2	4	5	1	10	23
	80	1	2	4	5	1	10	23
	81	1	2	4	5	1	10	23
	82	1	2	4	5	1	10	23
	83	1	2	4	5	1	11	24
	84	1	2	4	5	1	12	25
	85	1	2	4	5	2	11	25
	86	1	2	4	5	2	11	25
	87	1	2	4	5	2	11	25
88	1	2	4	5	2	11	25	
89	1	2	4	5	2	11	25	

行政職(二)					醫療職(二)	醫療職(三)	合計
技能職員(甲)	技能職員(乙)	勞務職員(甲)	勞務職員(乙)	計	營養士	看護婦	
	3	5		8	1	1	20
	3	5		8	1	1	20
2	4	15	10	31	1	1	51
3	20	11	5	39	1	1	63
3	20	11	5	39	1	1	63
2	24	11	3	40	1	1	66
2	24	11	3	40	1	1	66
2	22	11	3	38	1	1	64
2	22	10	4	38	1	1	64
2	22	10	4	38	1	1	64
2	22	10	3	37	1	1	63
2	21	10	2	35	1	1	61
2	20	9	2	33			59
2	19	7	1	39			55
2	19	5	1	37			54
2	19	4		25	1	1	52
1	19	4		24	1	1	51
1	19	4		24	1	1	50
1	18	4		23	1	1	49
	18	4		22	1	1	48
	18	4		22	1	1	47
	17	3		20	1	1	45
	16	2		18	1	1	43
	16	2		18	1	1	43
	12	2		14	1	1	40
	11	1		12	1	1	39
	9	0		9	1	1	36
0	7	0	0	7	1	1	34
0	5	0	0	5	1	1	32
0	4	0	0	4	1	1	31
0	2	0	0	2	1	1	29

VIII. 예 산

개소 이래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1)

예산의 추이

(단위 : 천엔)

	人件費	物件費	旅 費	土地借料	施 設 費	計	備 考
1959	3,887	4,149	579	1,008	71,480	81,093	59.4.14設置
60	10,623	10,279	1,440	1,008	26,413	49,763	
61	15,704	10,653	1,155	1,008	20,222	48,742	
62	20,022	10,318	1,258	1,008	9,253	41,859	
63	23,540	12,795	1,160	1,204	7,338	46,037	
64	28,136	13,243	1,141	1,296	7,738	51,554	
65	32,357	11,365	1,082	1,424	10,067	56,295	
66	36,615	19,863	1,353	1,683	8,991	68,505	
67	41,669	19,610	1,540	1,941	69,166	133,926	
68	47,278	28,062	1,839	1,941	188,952	268,072	
69	54,179	36,280	1,490	2,139	319,746	413,834	
70	60,503	46,092	1,883	2,139	21,398	132,015	
71	68,056	32,287	1,728	2,139	11,933	116,143	
72	82,525	45,192	2,129	3,942	8,807	142,595	72.4.1 會計 機關設置
73	98,840	43,950	2,396	4,570	40,003	189,759	
74	132,236	70,386	2,644	4,614	125,218	335,098	
75	144,671	62,112	2,203	6,715	6,547	222,248	
76	179,935	58,327	2,517	15,205	82,446	338,430	
77	186,281	63,143	2,908	19,103	18,469	289,904	
78	170,512	67,255	2,495	20,835	124,532	385,629	
79	178,229	83,607	2,732	22,472	121,016	408,056	
80	190,208	82,593	2,400	24,375	55,185	354,761	
81	213,179	77,893	2,914	27,261	56,578	377,825	
82	192,187	70,955	1,992	33,654	19,679	318,467	
83	222,346	68,847	2,552	33,654	52,430	379,829	
84	227,535	69,624	1,816	40,992	28,816	368,783	
85	180,848	72,094	1,878	43,904	56,925	355,649	
86	204,592	60,248	1,679	47,212	11,607	325,338	
87	199,029	63,326	2,436	49,818	87,641	402,250	
88	196,985	80,334	2,714	52,309	48,781	381,123	

- (注) 1. 59~73년도의 人件費, 物件費는 現金出納簿및 科目整理簿에 計上된 것임.
 2. 59~65년도의 施設費는 子算參照書에 의거함.
 3. 66~73년도의 施設費는 子算參照書 및 事務費의 示達額을 덧붙인 額임.
 4. 74~88년도는 연간의 子算示達에 의거함.
 5. 81년도는 57.1.1현재로 計上한 額임.

※ 人件費 : 退職手當·公務災害報償費·職員基本給·職員諸手當·超過勤務手當
 ·非常勤職員手當·童手當·諸謝金

物件費 : 本省廳費·各所修繕費·廳費·青少年教育施設研修廳費(82~87年
 度)·社會教育施設研修廳費(88年度~)·國立青少年教育施設備整
 備費·自動車重量稅·國有資產所在市町村交付金

旅 費 : 赴任旅費·職員旅費·委員等旅費

施設費 : 施設整備費·施設施工旅費·施設施工廳費

자 료

1. 연 표

1959년 1월 16일 「靜岡현 東富士연습장 반환에 수반하는 조치에 관하여」
국립중앙청년의 집 설치들 각의에서 양해.

1959년도

- 4월 14일 「문부상설차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성안에 따라 국립중앙청년의 집 설치를 결정.
- 5월 30일 토지사용에 관한 가계약 성립, 각서교환.
- 6월 1일 문부성내에 假사무소를 개설하여 창설사무를 개시.
- 9월 1일 지방 수리조합과 합의협정 체결.
- 9월 18일 연수생 연수개시. 숙박정원 400명.
- 9월 19일 개소식 거행. 황태자, 秩父宮 임석. 岸내각총리대신, 松田문부대신 동 내빈 500명 참석.
- 12월 29일 제2숙사 사용협정 성립.
- 3월 25일 川島田직원숙사 완성
(황태자 혼인, 사회교육법 일부개정)

1960년도

- 5월 7일 후지太郎坊캠프장 개설.
- 7월 25일 제2숙사의 사용을 개시하여 숙박정원이 제1숙사와 합하여 550명이 됨.
- 8월 15일 전국 중학교방송 육상경기가 개최되어 秩父宮妃 방문.
- 9월 4일 제1회 국립중앙청년의 집 운영위원회 개최.
- 9월 19일 개소 1주년 기념식전 거행, 荒木문부대신 임석.
- 10월 1일 세탁공장 조업 개시.
- 10월 2일 전국 청년학급생대회의 강연을 위해 池田내각총리대신 방문.
- 3월 25일 岸 前내각총리대신 방문.

1961년도

- 4월 5일 청년의 집 건설위원회 발족.
- 8월 13일 제3종육상경기장으로 공인됨.
- 8월 16일 秩父宮 방문
- 8월 21일 독일 청소년스포츠협회 방일대표단 방문.
- 9월 27일 청년群像 제막식. 제2체육관, 음악실 사용개시.

1962년도

- 8월 3일 보이스카우트 아시아 잼보리 개최. 황태자, 同妃, 荒木문부대신 방문.
- 8월 28일 프랑스 청소년단 방문.
- 9월 19일 개소 3주년을 기념하여 사진전을 개최.
- 11월 6일 아랍연방공화국의 청년지도자 방문.
- 3월 25일 연수동, 전시동의 개수 증축공사 준공.

1963년도

- 4월 13일 캄보디아 청년지도자 방문.
- 6월 5일 1호 연수실을 상담실로 개수.
- 7월 25일 전국 청소년스포츠대회를 위해 義宮, 灘尾문부대신 등 방문.
- 8월 10일 所章의 작도법을 제정.
- 8월 30일 灘尾문부대신 방문.
- 10월 17일 동남아시아 청년대표 방문.
- 11월 14일 베를린 청년지도자 방문.
- 11월 22일 석탄보일러를 증유보일러로 교체,
- 1월 7일 森戸 前문부대신 방문.
- 3월 31일 소내에 수은동 설치.
(국립 阿蘇청년의 집 설치)

1964년도

- 7월 25일 愛知문부대신 방문.
- 8월 5일 臼井총리부총무장관 방문.
- 8월 17일 秩父宮妃 방문.
- 9월 19일 개소 5주년 기념식전 거행. 愛知문부대신, 臼井총리부총무장관 등 출석.
- 3월 20일 電柱를 철거하고 통신선 지하대설.
- 3월 30일 도서실, 욕탕, 夏期시설, 느티나무 숙사 개수공사 준공.
(제18회 올림픽 東京대회 개최, 국립 磐梯정년의 집 설치)

1965년도

- 4월 6일 가뭄때문에 일부시설 단수.
- 7월 12일 남극지역 관측대 종합훈련 실시.
- 7월 23일 국제 워크캠프 참가 청년지도자 방문.
- 8월 12일 安井총리부총무장관 방문.
- 9월 19일 개소 6주년기념일에 애창가 「희망의 노래」 발표.
- 10월 19일 말레이시아 청년지도자 방문.
(국립 大嶽청년의 집 설치)

1966년도

- 7월 12일 소내 鏡原캠프장 완성.
- 8월 9일 말레이시아 정보방송대신 겸 청년문화스포츠대신 방문.
- 9월 17일 佐藤내각총리대신, 愛知내각관방장관 방문.
- 9월 19일 개소 7주년기념일에 有田문부대신 방문.
- 9월 25일 태풍 26호로 차고, 연수실, 자료실의 파손 및 야구장 먹아웃이 도피됨.
- 12월 4일 핀란드 청소년지도자 방문.

1967년도

- 5월 4일 국제유스호스텔연맹 회장 방문.

- 5월 10일 이스라엘 청소년국장 방문.
- 6월 2일 “사회교육 가이던스” 개시.
- 6월 3일 네팔 적십자총장 방문.
- 8월 18일 秩父宮妃 후지 太郎坊캠프장 시찰.
- 9월 19일 개소 8주년 기념일에 “젊은이의 노래·희망의 노래” 레코드 제작.
- 2월 7일 호주 청년지도자 방문.
(국립 江田島청년의 집 설치)

1968년도

- 4월 15일 부지 남쪽에 방풍림을 식수.
- 5월 22일 해발표준 기초측점을 청년군상 동남쪽에 결정(해발 약 300m).
- 7월 28일 秩父宮妃 방문.
- 9월 14일 西村농림대신 방문.
(문화성 설치, 총리부 청소년대책본부 설치)

1969년도

- 4월 29일 1968년도 시공건물 낙성식. 숙사를 “진달래” “소나무” “단풍나무”로 명명. 식당, 욕탕, 세탁공장도 아울러 사용개시.
- 6월 23일 청년의 집에 관한 문부성 조사연구회 위원 방문.
- 8월 8일 床次 총리부 총무장관 방문.
- 8월 15일 新단남의 광장 사용개시.
- 1월 29일 가물때문에 스포츠단체의 연수 중지.
(국립 淡路청년의 집 설치)

1970년도

- 5월 6일 사무국을 신관리동으로 이전.
- 5월 9일 신연수동 사용개시.
- 6월 5일 三笠宮 방문
- 6월 11일 문표 제막식, 洗心亭개설.

7월 25일 개소 10주년 및 신영공사 낙성기념식 거행. 秩父宮妃 임석. 岸前내각 총리대신, 坂田문부대신, 保利내각관방장관 등 참석. 기념지 「10년의 발자취」 「눈으로 보는 10년」 간행.

8월 7일 황태자, 同妃 방문.
(국립 赤城청년의 집 설치)

1971년도

8월 2일 高見문부대신 방문.

8월 6일 보이스카우트 세계 잼보리(朝霧고원) 참가자, 약천후로 본소로 피난.

11월 1일 제2숙사 보일러 개수 점화식.

12월 1일 후지 고산식물연구시설, 직원숙사 瀧原의 재계약.

3월 22일 주차장 신설.

(사회교육심의회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처하는 사회교육의 방안에 관하여」 답신. 국립能登 청년의 집 설치)

1972년도

5월 18일 사회교육심의회 청소년교육분과회 위원 방문.

6월 6일 동남아시아 청년지도자 방문.

10월 12일 日獨청소년지도자 방문.

10월 14일 아시아·아프리카 청년교육지도자 방문.

2월 6일 후지산 청년교육자료 전시실 재개.

2월 15일 인도네시아 문부성 소년국장 방문.

(문부성 學制시행 백년. 사회교육국장 동지 「국립청년의 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가 나옴. 국립 岩手山청년의 집 설치, 국립 沖繩청년의 집 설치)

1973년도

10월 2일 아시아 5개국 청년지도자 방문.

10월 11일 말레이시아 청년 33명 방문.

10월 16일 독일 청소년지도자 대표단 방문. 奥野문부대신 방문.

12월 2일 총리부 초대 아시아 청년 47명 방문.

3월 9일 동남아시아 10개국 청년지도자 방문.

(국립 大洲청년의 집 설치)

1974년도

6월 27일 아시아 5개국 문교관계 정부대표단 방문.

6월 29일 스웨덴 학교관계자 방문.

9월 11일 御殿場시 방재훈련실시요령에 의거하여 방재훈련 실시.

9월 13일 日韓유네스코 국내위원 방문.

11월 27일 유·검도장 준공.

(사회교육심의회 「재학청소년에 대한 사회교육의 방안에 관하여」건의. 국립 乘鞍 청년의 집 설치)

1975년도

5월 26일 유·검도장 낙성 피로연.

6월 21일 대한민국 前문교장관 방문.

8월 14일 秩父宮妃 임석하에 전국청년의 집 협의회 근속공로자 표창식을 거행.

9월 3일 坂田문부대신 방문.

3월 27일 인도네시아 문부성 청소년국장 방문.

3월 29일 아시아 10개국 청년지도자 방문.

(「방송대학의 기본계획에 관한 보고」. 국립 室戶소년자연의 집 설치)

1976년도

6월 19일 청소년교육시설에 관한 연구조사협력자 방문.

8월 15일 후지 등산 마라톤 부활 제1회대회 개최 협력.

10월 25일 폴 랭그란 박사 방문.

11월 18일 독일 청소년지도자 방문.

3월 5일 체육관 개수공사 완성.

3월 15일 합병처리시설 완성.

3월 25일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8개국 청소년지도자 방문.
(국립 三瓶청년의 집 설치)

1977년도

4월 3일 金美 사회과교육협의회 사무국장 방문.
10월 16일 영국 청소년문제심의회 위원장 방문.
10월 23일 유스호스텔 제4회 국제관리자 세미나 10개국 대표자 방문.
11월 12일 브라질 청년교육 지도자 방문.
11월 22일 연속박자수 200만인을 달성. 동남아시아 5개국 청년지도자 방문.
1월 10일 藤林 前최고재관소장관 방문
3월 25일 건조장 준공
(문부성인정 사회통신 30주년 기념)

1978년도

8월 5일 福田내각 총리대신 방문.
8월 6일 황태자 일가 방문, 砂田문부대신 방문.
10월 27일 제2숙사 1호관을 직원숙사로 교체하는 공사 착공.
11월 2일 아시아·오세아니아 제국 청년지도자 방문.
2월 15일 대한민국 문교부 사회국제교육국장 방문.
2월 24일 멕시코 교육성 기획담당 차관 방문.
3월 15일 숙박동 “벚꽃”준공.

1979년도

9월 19일 국립중앙청년의 집 개소 20주년식전 거행. 황태자, 同妃 임석.
岸 前내각총리대신, 內藤문부대신 등 다수 내빈 참석. 「20년의 발자취」 간행.
10월 11일 멕시코 국립청년대책심의회 회장 방문.
12월 20일 숙박동 “느티나무”준공 (이것으로써 제2숙사 숙박부문의 제1숙사로의 통합완료, 제1숙사의 연수생 숙박정원은 550명이 됨)

(청소년문제심의회 「청소년과 사회참가」의견 제출)

1980년도

- 8월 1일 독일 교육관 방문.
 - 8월 23일 한국 문교부 사회교육과장 등 방문.
 - 8월 31일 대한민국 대학생대표단-서울대학 방문.
 - 9월 13일 대한민국 대학생대표단-연세대학 방문.
 - 11월 30일 중국 청년대표단 방문.
 - 12월 11일 한국 대학생견학단-고려대학 방문.
 - 2월 6일 한국 문교부 체육국장 방문.
- (올림픽기념 청소년 종합센터 국립 이판)

1981년도

- 8월 21일 秩父宮妃 방문, 한국 학생지도자 방문.
 - 9월 5일 육상자위대 헬기추락, 파편 일부 부지내 낙하.
 - 10월 1일~1월 31일 식당동, 육실동, 숙박동, 보일러실 개수, 신체장애자
용 화장실 신설공사 완료.
 - 12월 2일 한국 군수시찰단 방문.
 - 1월 21일 한국 학생대표단 방문.
- (중앙교육심의회 「생애교육에 관하여」 답신, 사회교육심의회 「청소년의
특성과 사회교육」 답신)

1982년도

- 5월 16일 제1회 「청년의 집 축제」 개최.
- 10월 31일 테니스코트를 전천후형(3면)으로 개수.
- 3월 30일 국립중앙청년의 집 요람을 간행.
- 3월 31일 직영에 의한 세탁을 폐지.

1983년도

- 4월 1일 침구세탁비 수익자부담으로 함.
- 5월 3일 한국 고등학교·중학교장 방문.
- 6월 15일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장 방문.
- 7월 31일 한국 중앙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 청년지도자 방문.
- 8월 19일 태풍 5호에 의해 제1수원지 합몰 및 매설급수관이 파괴되어 御
殿場시 등의 급수차 협력으로 연수업무 대응.

1984년도

- 5월 12일 중앙교육부 방문.
- 7월 16일 한국시찰단 방문.
- 9월 24일 개소 25주년 기념의 모임을 OB직원을 중심으로 개최.
- 9월 27일 日獨청소년지도자세미나 참가자 방문.
- 2월 12일 쫓시설을 매설하여 보조 운동장으로 함.
(임시교육심의회 발족)

1985년도

- 5월 11일 중국 청년시찰단 방문.
- 5월 31일 중국 과학기술시찰단 방문.
- 7월 18일 법무성 아시아·극동 범죄방지연수소 초청 15개국 외국청년 방
문.
- 1월 31일 한국 청소년연맹 지도자 방문.
(임시교육심의회 「교육개혁에 관한 제1차 답신」을 제출)

1986년도

- 9월 9일 궁도장 준공.
- 9월 28일 궁도장 신축기념식을 거행.
- 11월 30일 수도 減菌所 신설.
(임시교육심의회 「교육개혁에 관한 제2차 답신」을 제출. 사회교육심의회
사회교육시설분과회 「사회교육시설에 있어서의 자원봉사활동의 촉진에 관

하여」 보고)

1987년도

4월 21일 연속박자수 300만인 달성.

2월 15일 야외취사동 3동, 옥외화장실, 취사용구庫 준공.

3월 15일 29년간 숙박동 및 鏡原캠프장의 夏期시설로서 사용해 온 “계수 나무”를 해체.

(임시교육심의회 「교육개혁에 관한 제3차 답신」 「교육개혁에 관한 제4차 답신-최종답신」을 제출)

1988년도

8월 31일 청소년문제심의회 종합적 청소년행정추진회 위원 방문.

1월 31일 전화교환기 갱신.

3월 25일 야외활동동(로그 하우스)준공.

(문부성에서는 임시교육심의회 답신의 제언을 토대로 기구개혁을 단행함. 사회교육국을 폐지하고 생애학습국을 설치, 昭和천황 별세)

1989년도

4월 1일 야외활동동(로그 하우스)사용 개시.

9월 19일 개소 30주년 기념식전 거행, 황태자 임석.

2. 직원명단

(1) 현직원(1989년 9월 1일 현재)

직 명	성 명	발령월일
所 長	藤 村 和 男	88. 6.20~
① 庶務課		
庶務課 長	佐 藤 茂 夫	87. 4. 1~
庶務係 長	小 木 曾 昭 彦	84.11. 1~
庶務主 任	磯 部 和 子	60. 6.16~
係 員	勝 又 ます 枝	67. 8. 1~
”	佐 野 讓	88. 4. 1~
會 計 係 長	橫 山 伸 一	87.10. 1~
係 員	西 山 友 由	68. 5. 1~
”	岩 田 梅 子	63. 1. 1~
”	柳 田 敏 也	81. 4. 1~
”	栗 本 憲 二	83. 4. 1~
自動車運輸手	竹 內 金 一	59. 7.10~
營 繕 工	與 田 峰 生	85. 4. 1~
② 事業課		
事 業 課 長	高 崎	63. 6.10~
主任專門職員	高 尾 忠 一	87. 4. 1~
專 門 職 員	伊 倉 重 弘	65.10. 1~77. 3.31
專 門 職 員	渥 美 武 次 郎	79. 4. 1~
”	89. 4. 1~	
”	花 香 健 司	89. 4. 1~
”	加 藤 情 以	89. 4. 1~
業 務 係 長	小 川 和 雄	86. 4. 1~
業 務 主 任	小 板 橋 昇	81. 4. 1~
係 員	勝 又 勇 造	60. 8. 1~
”	內 村 俊 夫	60. 5.16~

看 護 婦	松 永 茂 樹	89. 4. 1~
指 導 係 長	山 田 由 美 子	87. 4. 1~
係 員	藤 田 幸 雄	87. 4. 1~
營 養 士	吉 里 和 久	80.10.10~
	松 本 康 江	59. 9.11~
③ 非常勤職員		
機 能 補 佐 員	芹 澤 貞 一	83~
臨 時 用 務 員	勝 又 房 雄	85~
”	杉 山 登	88~
”	勝 亦 警	89~